

지역문화 창달의 길잡이

# 慰禮文化

제5호

하남문화원 / 경기도 하남시 덕풍 1동 426-10 / 전화번호:(031)795-1020



하 남 문 화 원

2001

◆ 제 호 변경 : 지난 제2호까지는 「하남문화(河南文化)」로 발간하였습디만, 제3호부터는 「위례문화(慰禮文化)」로 제호를 변경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백제의 온조왕이 최초로 도읍한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의 위치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당시 우리 고장도 초기 백제의 지역이므로 위례성의 위례(慰禮)로 하남문화원 문화지(文化誌)의 제호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제자(題字) : '慰禮文化' 素農 李聖淑  
[하남문화원 이사]

◆ 사 진 설 명 : 하남시화 - 은방울꽃

-지역문화 창달의 길잡이-

# 禮文化

제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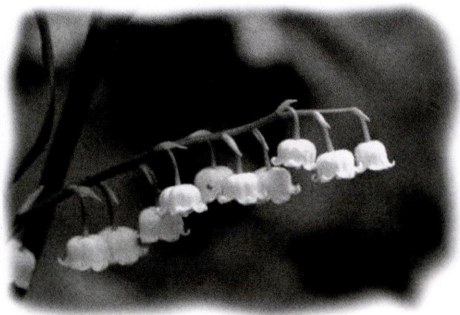
하남문화원

2001

-지역문화 창달의 길잡이-

# 禮文化

제5호



하남문화원

2001

권 두 시

## 남매탑 앞에서

-계룡산행 중-

김미숙

가지끝 손으로 맞닿아  
하늘 한자락 가리우고  
잎새를 수놓은 노을 풍경

아~  
오르다 쉬어가는 길에  
다섯겹 일곱겹으로  
쏟아올린 남매탑

한핏줄 나는 오누이의 고향정  
행인의 발걸음 멈추오고  
메아리쳐 오던 쉼던 세월은  
옥개석 밑으로 꿈틀대는데  
가을 바람 다독다독  
낙엽 떨켜 잠재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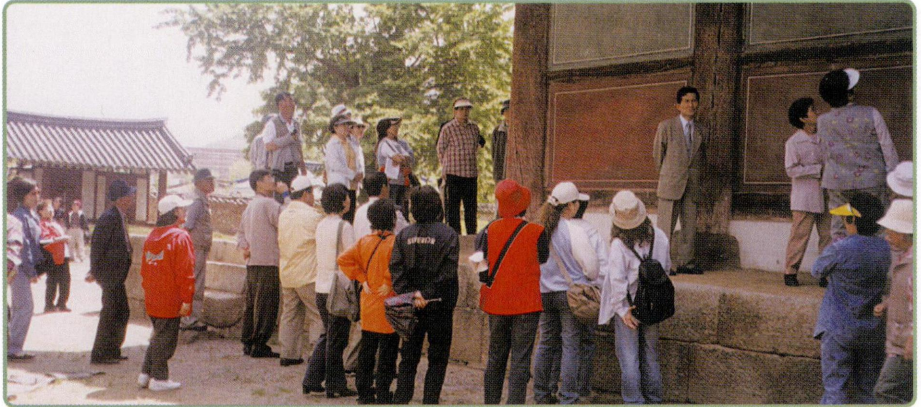
---

시인 김미숙은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2000년 『한국크리스천 문학』에 시부문으로 등단하였으며 현재 한국크리스천 문인협회와 하남문인협회 회원 · 하남문화원 글짓기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화보로 본 2001

# 지역문화의 해



▲ 문화유적답사(나주 금성관)

어린이 글짓기반 현장학습 ▼



◀ 제5회 어린이 바둑대회

◀ 여름방학 명문서당



제5회 하남사랑 창작대회 ▶



가을속에서 산책과 음악을



▲ 제4회 향토작가 작품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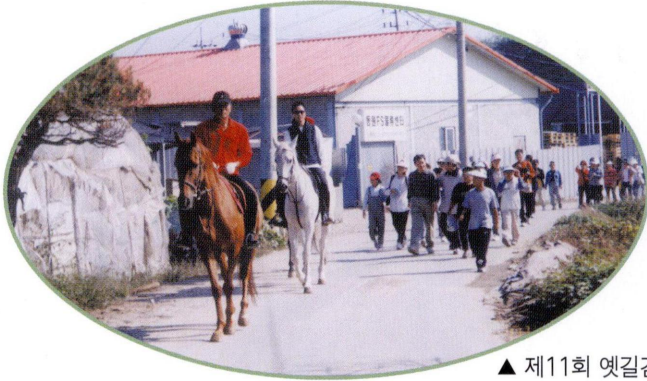
▲ 2001 국악한마당 순회공연

▼ 제4회 하남거리예술제





▲ 하남시사 출판 기념회



▲ 제11회 옛길걷기대회

▼ 시민의날 행사





# 옛 사진으로 본 하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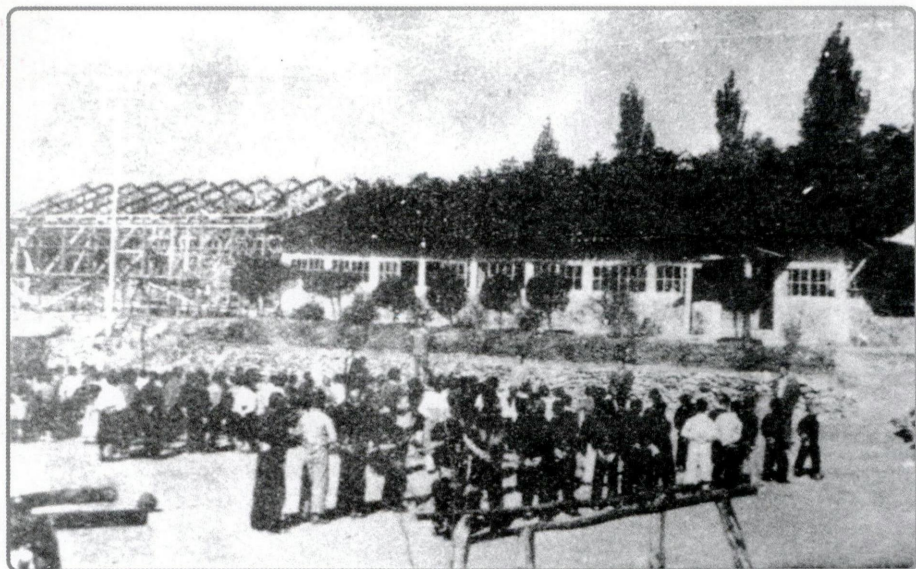
▲ 광주향교

▼ 미사리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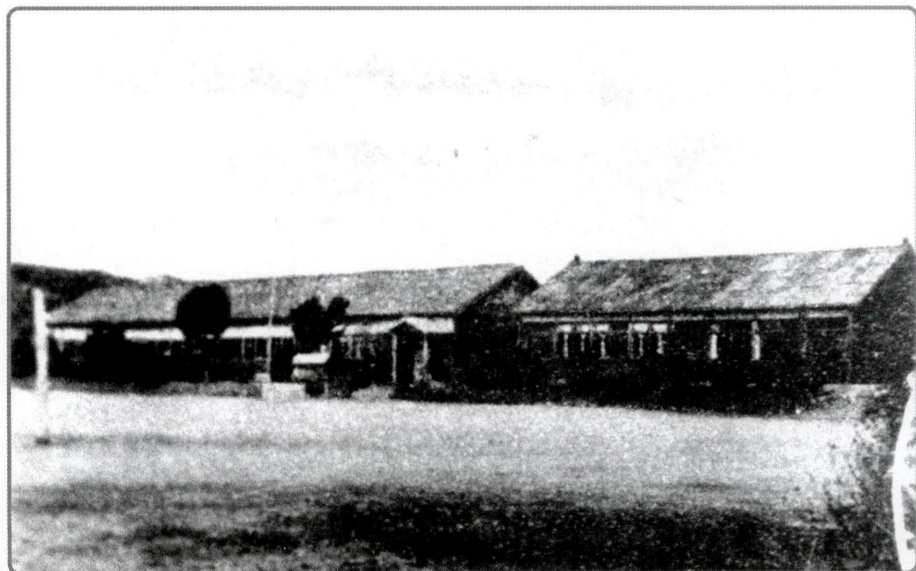
서부지서 ▲





▲ 산곡국민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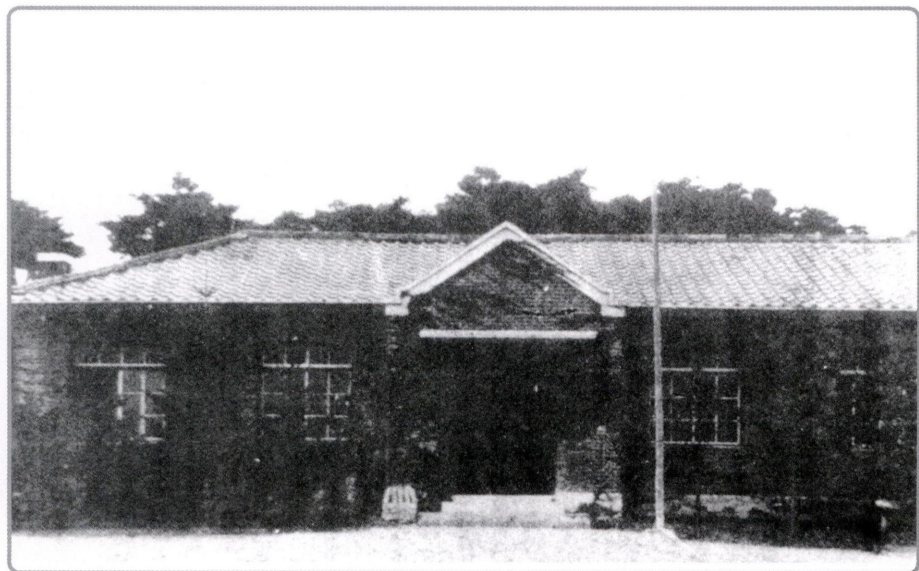
고골국민학교 ▼





▲ 서부면사무소

동부면사무소 ▼



여 백

p.12-14

# 발간사



2001년은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지역 문화의 해였습니다.

이는 바로 지금까지 중앙 일변도로 추진 되어 중앙 대도시의 시민들만이 문화의 혜택을 누리던 것을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문화를 발굴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 하남은 아직까지 시로 승격 된 이래로 지역적인 특성 상 대부분의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문화적으로도 시민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남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화유적의 발굴 및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고 그린벨트 또한 다소간 해제 될 전망이어서 우리 하남시가 변모할 수 있는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이 보다 활발하고 다양해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남문화원은 1996년 설립된 이래로 우리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미력이나마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보다 더 연구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적 생활을 누리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동안 각종 문화 행사들을 주관해 오면서 느낀 점은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쉬웠다는 점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는 바로 우리들이 개발하고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새롭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임을 자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문화적 활동은 과거와 같이 정부나 관에서 주도하는 시대를 벗어나 점차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축제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일이나 놀이 등 모든 것이 마을 단위로 이루어져왔음을 볼 때 우리 민족은 무한한 발전의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위례문화』 제5호를 펴내면서 우리 문화원의 연륜도 깊어감을 느끼며 보다 더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 설 수 있는 문화활동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화원 회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01. 12. 20

하남문화원장 이 용 우

권두시

화보로 보는 2001 지역문화의 해

하남의 옛 모습

발간사

이 용 우

차례

## 하남의 문화유적

● 이성산성	21
● 미사리 선사유적	27
● 천왕사지	30
● 문화재 신규지정	32
▷사충서원 묘정비	33
▷천주교 구산성지	34

## 하남의 금석문

하남의 금석문 현황	37
운산군 신도비	72

## 우리 고장의 역사인물

- ◇ 운산군 이계 (81)
- ◇ 암행어사 이건창 (84)
- ◇ 문숙공 이지강 (89)

하남의  
심  
집성촌  
남인

- ◎ 광주 이 씨 (92)
- ◎ 온양 방 씨 (97)
- ◎ 경주 김 씨 (98)

## 우리 고장의 설화와 전설

- 하남시 설화조사를 위한 소고 / 유병상 (100)
- 감북동 황새우물이야기 (111)
- 황금밥과 백금반찬 (112)
- 막은데미 장군과 말의 이야기 (114)
- 한다리 이야기 (115)

### ● 하남의 민속

감이동 우물제	117
신장동 거리제	119

## 이남의 지명유래 (산과 고개이름)

객산(121) · 검단산(122) · 금암산(123) · 봉암산(124) ·  
벌봉(124) · 이성산(124) · 철마산(125) · 일자산(126) ·  
증산(126) · 은고개(126) · 향여고개(128) ·  
범재고개(128) · 사리고개(129) · 기타(129)

## 문화유적답사기

전남 나주의 문화유적 기행 · 배순덕 (130)

## 하남의 종교사 자료

하남 예일교회(구 미사촌 교회)의

역사 · 김윤규 (141)

## 어린이잔치

가을 · 김민규 (150) / 낙엽 · 이경민 (151)

단풍잎 · 조희원 (152) / 스케이트장 · 유도희 (153)

붉게 물든 들판 · 황유빈 (154) / 가을 · 민중연 (155)

방학 · 박영진 (156) / 은행잎, 단풍잎 · 이유리 (157)

우리 나라 · 이혜민 (158) / 딸기 · 진아림 (159)

할머니 · 이경아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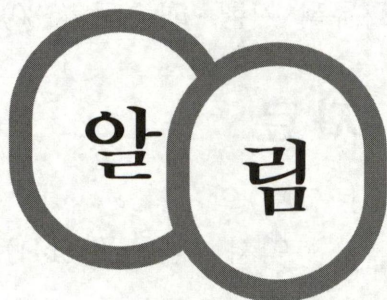
## 문화 행사 및 문화원 활동

2000년도 사업 및 활동 · 161

2001년도 사업 및 활동 · 165

2001년 지역 문화 행사 · 174

### 하남의 지역사 관련자료 · 183



◇하남문화대학

수강생 모집 · 188

민요 · 가요 (190) /디스코&

라틴댄스 (191) /문인화(192) /한문서예 (193) /

한글서예 (194) /서양화A (195) /서양화B (유화) (196) /어린

이바독교실 (197) /어린이글짓기 (198) /어머니논술교실 (19

8) /종이공예 · 어린이종이접기 (199)

◇ 하남기우회 회원모집 · 200

◇ 위례문화 제6호 원고모집 · 201

◇ 문화원 회원가입안내 · 202

◇ 문화원에서 하는 일 · 204

## 하남의 문화유적

# 이성산성

**이성산성**은 하남시 춘궁동 36번지의 이성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적 제422호로 지정되었다. 이성산성은 주변의 삼국시대 성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삼국 가운데 한강유역을 가장 먼저 점유했던 나라는 백제였으며 온조대왕이 서기전 18년에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한 이후 475년에 고구려의 침입으로 문주왕이 웅진으로 도읍을 옮기기까지 거의 500여 년 간을 영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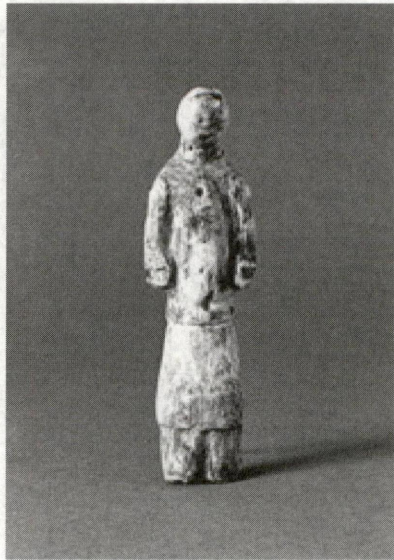
그 후 백제는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유역을 고구려로부터 탈환하게 되나 553년에 신라의 진흥왕이 백제와의 동맹을 파기하고 한강유역을 점령함으로써 한강유역은 신라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

삼국의 한강유역 쟁탈을 위한 각축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성산성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폐허가 된 채 역사적 기록에서조차 누락될 정도로 잊혀져 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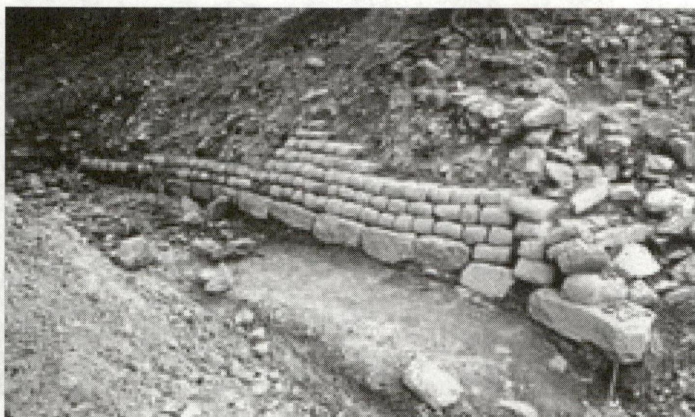
이성산은 해발 209.9m로서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에서 금암산으로 줄기를 이었으며, 청량산의 한 줄기는 북동쪽으로 올라가 객산(客山)을 이루어 동쪽으로 검단산과 연결되는데 백제의 초기 도읍지로 추



정되는 하남 일대를 이 산줄기들이 아늑하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이 지역은 넓고 비옥한 평야로서 덕풍천과 산곡천이 한강으로 흘러들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다.

이처럼 이성산의 동, 서, 남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북쪽으로는 시야가 막히는 곳이 전혀 없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당정리, 미사동, 선동, 암사동, 천호동 등 한강 이남의 땅은 물론 팔당, 수석동, 광장동 등 한강 이북 지역의 동태를 파악하기에도 매우 용이한 지형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성산성의 둘레는 1,925m 이며 자연지형을 따라 축조하였기 때문에 부정형의 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으며, 성 안의 면적은 대략 156,025㎡(약 4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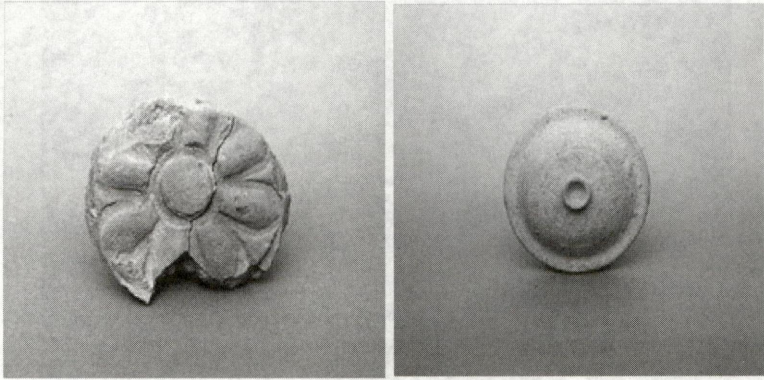


평) 정도이고, 서남쪽의 지형조건이나 위치로 볼 때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성벽은 해발 110m지점에서 남쪽의 계곡을 가로지르며 저수지를 만들고, 능선을 타고 올라가 해발 185m지점에서 주봉을 감싸안고 돌아서 다시 능선을 타고 내려와 출발지점과 연결되고 성벽의 낮은 곳과 높은 곳의 차이는 약 60m정도이다.

그리고 인근 마을에서 성벽에 도달하는 거리는 북쪽의 상화울 마을에서는 413m, 북서쪽의 광암동 마을에서는 560m, 남쪽의 춘궁동에서는 300m정도이다. 따라서 이성산성은 주변의 평야지대와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산성 안의 건물들은 대개 창고, 병영, 장대 등 전투에 필요한 건물이 대부분이지만 이성산성의 경우 이밖에도 행정적, 의례적인 요소의 건물들이 있었음을 알



이성산성 출토 수막새 기와/그릇뚜껑

수 있다. 이것은 이성산성이 단순히 군사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행정중심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성산성에 있었던 건물의 특징은 다각형 건물이 많았다는 사실인데, 특히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조사 보고된 사례가 드문 9각형의 건물터와 12각이라는 독특한 건물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동쪽으로 검단산 자락에 흙과 돌을 섞어서 쌓은 성이 있었고, 북쪽으로 구산토성과 암사토성, 풍납토성이 자리하고 서북으로는 몽촌토성이 있어 이성산성에서 한눈에 내려다 보일 뿐 아니라 대개 5km정도의 거리에 방사형으로 분포하고 있으므로 주변 지역 성들과 긴밀한 협조로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중앙위치가 이성산이므로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하남이 백제의 도읍지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성산성에서 출  
토된 꼬끼리 발  
모양의 벼루 다리

이러한 지리적 이유로 춘궁동 일대와 이성산은 일찍이 조선시대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백제의 하남 위례성(河南 慰禮城)이 있던 곳이라고 하였던 것이고, 홍경모는 『중정남한지(重訂南漢誌)』에 이성산을 온조대왕의 성이라고 보았으며 왕궁은 궁촌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864년에 발간된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이성산에 백제의 성지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조선시대에는 춘궁동 일대에 백제의 왕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는 1985년에 발굴을 시작한 이래로 9차에 걸친 발굴을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도 다양한 유물이 출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출토된 유적과 유



물은 대략 다음과 같다.

장방형 건물터, 토제마편 27점 및 철제마편 17점, 8각 건물터(사직단으로 추정됨), 9각 건물터, 12각 건물터, 저수지, 저장구덩이 3곳, 신앙유적 4곳, 목간, 칠기, 목제가면, 성벽, 목척(木尺), 무문토기조각, 회청색토기조각, 토제벼루, 마제석촉, 석봉, 쇠조각, 적갈색 연질토기조각, 숫돌조각 등 다수이다

8차 발굴에서는 한국에서 발견된 전례가 없는 고구려 목간(木簡)이 발굴되었으며 고구려의 큰 성을 관리하던 육살(褥薩)이라는 고구려의 관직명이 쓰여 있음이 확인되었고 또한 고구려척(高句麗尺)이 발굴되었다.

또한 2001년도의 9차 발굴에서는 동문지(東門址)를 조사한 결과 현문식 구조를 확인하고 수차에 걸쳐서 보축 또는 수축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동문지의 초축의 시기는 백제시대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조사연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자료◀

- 1) 이성산성 제8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 2) 이성산성 제9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 하남의 문화유적

# 미사리 선사유적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미사동 선사 유적은 원래 남북이 긴 타원형의 섬으로, 동북쪽으로는 한강의 본류가 흐르고 그 반대편 내륙 쪽으로는 샛강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1988년 샛강을 막아 조정경기장을 만들면서부터 이 유적지 주변 한강의 흐름이 빨라지고 홍수로 인한 침식이 심하여 현재의 지형은 과거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남시의 미사동은 모래가 섞인 충적평야가 펼쳐져 오래 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생활 터전이 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미사동 유적지가 학계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60년대 부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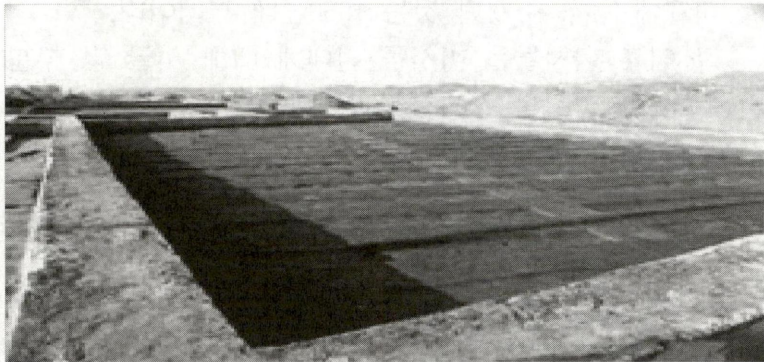
그 이후 학자들은 미사동 일대에 대해 시굴 및 부분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대한 선사유적지로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당국은 미사동 557-1번지 일대를 국가 사적지로 지정하였고, 1980년에는 4개 대학으로 구성된 연합조사단이 발굴에 착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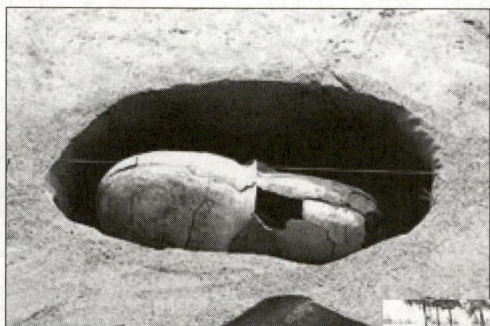
당시의 발굴 조사는 주로 미사동의 동북쪽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미사동 유적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후 미사동 유적의 본격적인 발굴이 1987년부터



1992년에 걸쳐 다시 이루어졌다.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세 차례에 걸친 종합발굴로 미사동 유적지가 신석기시대는 물론 청동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 그리고 역사시대로 이어지는 귀중한 유적지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미사동 유적지는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 문화층 위에 청동기시대의 민무늬토기가 발견되었는데, 빗살무늬토기에서 민무늬토기로 전환되는 과정을 검토한 결과, 토기의 속성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청동기시대의 민무늬토기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외부에서 대대적으로 이주하여 빗살무늬 토기인들을 소멸시켰다는 종래의 학설에 모순점이 많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미사동 유적지에서는 초기 한성백제 시대의 농경지가 발견되어 우리나라 농경문화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미사동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은





미사동 출토 옹관묘▲



미사동 청동기시대 주거지▶

수천여 점에 이르고, 중요한 유구도 466개나 확인되었다. 따라서 약 8만여 평에 산재한 유물과 유구의 성격은 미사동 일대가 신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한강유역의 역사를 규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유적지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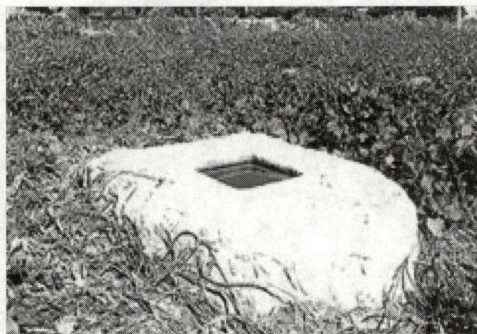
『하남시사』



## 하남의 문화유적

# 천왕사지

하남 천왕사지는 하사창동 일대에 위치하는 대형 사찰터로서 이미 1999년 세종대학교의 문화유적 분포조사를 통해 다량의 “天王”銘 기



와 조각과 불탑의 추정 심초석으로 판단되는 대형석재가 확인되어 기록상의 “천왕사”터로 추정되었던 곳이다. “天王”銘 기와의 출토는 여주 고달사지의 “원종국사혜진탑비(元宗國師慧眞塔碑)” 등의 기록에서 간략히 언급되었던 광주 천왕사를 이 지역으로 비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춘궁리 철불로 불리는 보물 제332호 철불의 대좌(臺座)로 추정되는 대형 석제대좌가 이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한국문화재 보호재단에서 2차에 걸쳐 조사한 결과 확인된 유구는 추정 목탑지 1동, 건물지 1동, 담장지 3

렬, 배수시설 3렬, 기타 석렬 1렬, 추정 기단시설, 소성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또한 유물로는 “天王”명문기와, 압·수막새, 치미, 연목와, 방형전 등 다양한 와전류와 대호, 해무리굽 청자, 소조불상 조각, “又且”銘 등기와조각과 “官”자 銘 기와편 등 수십 점이 출토되었다.



▶참고자료◀

- 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하남 천왕사지 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 2001. 4. 13
- 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하남천왕사지 2차 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 2002. 12. 31



## 하남의 문화유적

# 문화재 신규지정

2001년 3월 23일 에는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비지정 문화재중 역사적 학술적으로 보존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고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을 위해 향토유적 지정 심의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심의회에서는 상산곡동의 사충서원 묘정비(四忠書院 廟庭碑)가 향토유적 제3호로, 망월동의 천주교 구산성지가 향토유적 제4호로 각각 지정되었으며, 이로써 하남의 향토유적은 제2호인 밀성군 묘역과 함께 세 곳이 되었다.

한편 하남시 향토유적 제1호이던 이성산성은 2000년 9월 16일에 국가사적 422호로 지정되면서 자동 해제되었다.

## 사충서원 묘정비

사충서원 묘정비는 조선 정조 10년(1786)에 세워졌으며 전체높이 257cm, 비신 156cm, 폭 64cm, 두께 27cm이며 오재순이 짓고 비문은 홍낙성이 쓰고 전액은 김익의 글씨이다.



조선 20대 경종의 생모인 장희빈이 경종의 아버지인 숙종에게 죄를 지어 사약을 받을 때 소생인 세자와 마지막으로 이별

을 간청하므로 이를 허락하였더니 희빈은 숙종에 대한 한으로 세자의 몸에 위해를 입혀 경종은 신체불구가 되었다. 이런 까닭에 경종은 자식이 없어 여론의 반영기구인 대간에서 숙종의 제3왕자 연잉군을 세자로 책봉하기로 상소하였다. 이에 당시의 대신인 영의정 김창집, 좌의정 이이명, 우의정 조태채, 좌의정 이건명 등 네 사람이 협조하여 경종왕에게 품신하니 경종도 이를 수락하여 대비의 전교를 받아 연잉군을 세자로 책봉하였다. 이렇게 되자 이에 반대하는 일파의 모함으로 세자 책봉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귀양을 가고 네 충신을



죽이니 이것이 신임사화이다.

이 일이 있은 후 3년 뒤 경종이 죽고 연잉군이 왕위에 오르니 이가 영조대왕이다. 영조는 즉위 아듬해 네 대신 이하 희생자 전부를 명예회복 시키고 다음에 3월에 노량진에 사충서원을 건립토록 명을 내리고 종묘를 짓고 남은 재목을 하사하였다. 이 해 8월에 준공되어 친필로 원액(院額)을 하사하고 4대신을 배향한 후 제관을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그 후 1927년 이곳이 철도용지로 편입되게 되어 고양군 한지면 보광리(현재의 용산구 보광동)로 옮겨지었는데 6.25사변으로 불타고 1968년에 하남시 상산곡동 100번지로 옮겨 중건하게 되었으며 묘정비와 4대신의 영정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 천주교 구산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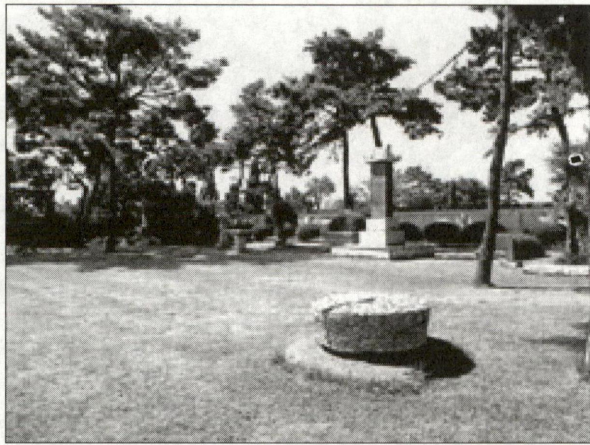
천주교 구산성지는 망월동 387-10번지에 소재한 1800년대 우리 나라 천주교 박해 당시 순교한 9명의 묘역이다.

당시 남한산성에서는 최초의 박해인 신해박해(1791년) 때부터 천주교신자들이 남한산성에 투옥되었다고 전해지며 신유박해(1801년) 때에는 최초로 한덕은 토마스가 참수당하였다. 기해박해(1839년)와 병인박해(1866년)에 이르기까지 약 300명에 달하는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하였는데 현재 그 행적과 성명을 알 수 있는 순교자들은 45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가운데 구산 성지와 관련 있는 신자가 9명이다.

103위 성인 가운데 71번째 성인 김우집(김성우 안토니오)를 비롯해 많은 순교자가 탄생한 유서 깊은 사적지이다. 특히 구산은 순교 성인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오며 성인의 묘소와 가족묘지를 함께 보존하고 있는 곳이라는 특성이 있다. 더구나 성인의 순교 이후로도

거의 160여년 동안 구산은 교회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돈독히 지켜 가는 교우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구산 마을에 천주교가 언제 전파되었는지는 정확한 기원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구산 마을이 양근지방으로 가는 뱃길의 길목이었으며 멀지 않은 곳에 천주교회의 진원지 천진암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일찍부터 천주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김대건 신부에 대한 구전이 있다. 이곳 구산에서 김대건 신부가 첫 미사를 봉헌했다고 하



는 구전이다.

이곳 구산에서는 천주교 성인으로 시성된 김우집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김만집과 김문집, 그의 아들 성희, 김만집의 아들 차희, 김문집의 아들 경희, 사촌 김주집의 아들 윤희, 최지현, 심철여가 순교하였다.

---

▶참고자료◀

- 1) 하남시 문화관광과, 하남시 향토유적 심의회 자료, 2001. 3. 23
- 2) 하남문화원, 위례문화 제4호(1999)를 참조하면 구산성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 하남의 금석문

## 하남의 금석문 현황

진 한 용

(고려금석원 원장)

하남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선사시대로부터 우리 인류의 삶의 터전이 되어 왔으며 백제가 건국되던 초기부터 약 500년 가까이 도읍지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또한 그 후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중기까지 구 광주의 행정중심지로서 기능하였던 곳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남지역에는 좁은 면적에 비하여 수많은 금석문 자료가 분포되어 있는 곳이다.

현재 하남지역의 금석문에 관한 자료는 하남시에서 발행한 『문화유적분포지도』와 하남시와 세종대학교에서 공동으로 발행한 『하남의 역사와 문화유적』 및 경기도박물관에서 발행한 『경기문화유적지도2』에 지표조사 내용이 간략히 수록되어 있는 실정이고 누락된 자료가 많다. 그리고 『하남시사』에 일부 금석문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나 대표적인 몇 개만 수록되었을 뿐이어서 역시 본격적인 자료활용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금석문 자료는 문화재의 위치 성격상 산이나 들판,



산소 등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세월의 흐름과 개발의 여파로 간혹 귀중한 금석문 자료가 인위적으로 외부로 유출되거나 방치되기도 하며 또한 자연적인 풍화작용으로 인하여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마멸되어 가는 실정이다. 이에 하남문화원은 우리 지역의 금석문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일차적으로 금석문의 현황과 보존실태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1년 11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의 기간 중 10일간에 걸쳐 하남문화원과 고려금석원이 협조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으며 여기에 그 결과를 소개하고 아직 답사하지 못한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2002년도에 추가로 조사하여 금석문 자료집을 만들 때 보충하기로 한다. 이번 조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조사기간 : 2001년 11월 12일 ~ 11월 26일 (10일간)

■ 답 사 자 :

- 하남 문화원 : 윤종준 사무국장
- 광 주 향 교 : 박인수 사무국장
- 고려 금석원 : 진한용 원장, 조이형, 김영일

■ 답사목적 : 하남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금석문 [비문]을 현지 답사하여 사료를 수집·정리하고, 현황을 분석 한 후 『하남금석문 대관』을 발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사전 답사임.

▣ 답사 내용 : 금석문 자료 수집, 답사 및 현황조사, 사진촬영, 자료 정리 등

※ 조사실적물 자료 :

- 결과 보고 : 파일 1권내 (4 매)
- 목록 현황 : 파일 1권내 (19 매)
- 답사 일지 : 파일 1권내 (182 쪽)
- 사진 (3\*5") : 파일 4권내 (640 장)
- 슬라이드 필름(135mm) : 21통 (624 컷)

▣ 금석문 답사 결과 분석

- 채탁 대상 금석문 : 53 기
  - 신도비(11기), 묘갈(22기), 묘표(19기), 암각(1기)
- 문화재 2기 포함
  - 태평2년 마애약사불좌상 : 보물 제 981 호
  - 밀성군 李璫 신도비 : 향토유적 제 2 호
- 자료 금석문 : 135 기
  - 신도비(5기), 묘갈(8기), 묘표(116기), 기타 (향교 외 6건)

▣ 조사 실적

(단위 : 기)

구분	계 획	답사 결과			비 고
		기존	신규조사	소계	
수 량	82	82	106	188	



▣ 하남의 금석문 분포 현황

(단위 : 기)

구 분	신도비		묘 갈		묘 표		재실	소계	비 고
	탁 본	자료	탁 본	자료	탁 본	자료			
초1동	1		5	1	6	21	1	35	
초2동	4	1	8		3	32	2	50	
덕풍동	1	2	1	5	1	17	1	28	
덕풍3동						2		2	
천현동				1		2		3	
풍산동			1			4		5	
감북1동						1		1	
감북2동						1		1	
감북3동	2		1		1	16	1	21	
감1동			1			4		5	
감2동		1				1		2	
광암동			3		3	1		7	
춘궁동	1				2	4		7	
교산동	1				3	1		5	암각 1기
망월동						3		3	
상산곡동			1			2		3	
하산곡동	1		1	1	1	4	1	9	
배알미동		1						1	
합 계	11	5	22	8	20	116	6	188	

▣ 향교 · 서원 · 성지 · 사 · 재실 현황

구분	명칭	관리자	건립년대	소재지
향교	광주향교	유림	조선초기	교산동 227-4
서원	사충서원	유림	1725년	상산곡동 100-2
성지	구산성지	천주교	1917년	망월동
사	효회사	전주이씨	조선후기	초2동 319-5
	충목사	기계유씨	조선후기	하산곡동 264
재실	정평재	풍천임씨	1999년	초1동 55-3
	영모재	진주정씨	1930년	초2동
	선덕재	전주이씨	2001년	덕풍동 501
	위정각	안산김씨	1982년	감북3동 157

▣ 답사 성과

- 초1동 청뜰 소재 任珖 묘표(1766)는 姜世晷의 隸書體 조사.
- 초1동 청뜰 소재 任孝達 묘갈(1683), 任量 묘표(1704), 任守朝 묘갈(1759) 조사.
- 초2동 산13에서 鄭百亨 묘갈(1636)의 12기 조사.
- 초2동 초이 129 앞산에 朴치 묘표(1501) 조사.
- 덕풍동 산64에 宣城君 李茂生 신도비(1937), 李遵道 묘갈(1612)의 15기 조사.
- 감북3동 안촌에 安承命 묘갈(1581)은 韓濩의 楷書體 조사.
- 광암동 넘바위골에 金禮俊 묘갈(1705)의 5기 조사.
- 춘궁동 춘궁 118길 앞 閔廣植 慈惠碑(1938) 조사.
- 풍산동 산98-1의 朴慶應 묘갈(1684)의 4기 조사.



▣ 천장 및 미확인 묘소

- 43번 국도 확장공사에 따른 덕풍동 수리골의 李之剛 묘소가 경북 영해로 천장 하였고 신도비(1984)는 현재 남아 있으며, 또한 李之柔의 묘소는 고골로 천장 하였으나 확인치 못함.
- 춘궁동 산44-3의 綾昌大君 李佺 묘표(1633)가 1999년 포천으로 천장됨.

▣ 결론 및 향후계획

-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금석문의 현황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중요한 문화유적을 재인식하게 되었음.
- 도시개발과 산업화에 따른 천장과 이전되어 오는 금석문을 지역유지나 문중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참고문헌(비문, 족보 등) 자료를 문화원에서 수집하여 지원함.
- 채택된 금석문 53기는 2002년 3월 20일부터 채택하여 금석문 전시회를 개최 후 『하남금석문대관』으로 제작하고자 함.

## 金石文 踏查 現況 (1日次)

- 답사일자 : 2001년 11월 12일 (월요일)
- 답사결과 : 총 30건 , 기존 확인 12건, 신규조사 18건
- 탁본대상 : 총 12건  
(신도비 1건, 묘갈 4건, 묘표 7건)

● 답사목록

區分	諱 : 碑 官職名	所在地 地名	建立年代 碑形態	撰書篆	拓本	資料	備考
1	任說 묘표 漢城府判尹	초1동 산2 칭뜰	朝鮮後期 碑座圓首	- - -		○	
2	任說 신도비 漢城府判尹	칭뜰	1707 碑座蓋石	李植 任守迪 李도	○		
3	任榮老 묘표 宗簿寺正	칭뜰	1708 碑座圓首	任望 任守迪 -	○		
4	任章 묘갈 (舊) 世子侍講院文學	칭뜰	1663 碑座圓首	金蕪國 李山賚 -	○		
5	任章 묘갈 (新) 世子侍講院文學	칭뜰	1987 碑座圓首	金蕪國 任昌宰 -		○	
6	任相元 묘표 左參贊	칭뜰	1987 碑座圓首	- 任希聖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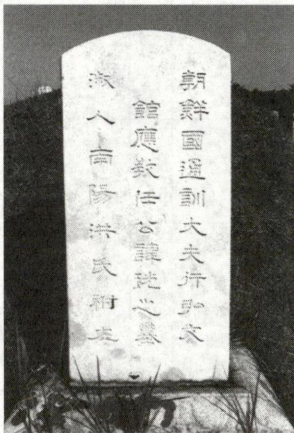


區分	諱：碑 官職名	所在地 地名	建立年代 碑形態	撰書 篆	拓本	資料	備考
7	任達元 묘표 成均進士	청뜰	1987 碑座圓首	- - -		○	
8	任珣 단비 右副承旨	청뜰	1987 碑座圓首	任希曾 - -		○	
9	任堂 묘표 掌隸院判決事	초1동 산2 청뜰	1987 碑座圓首	- - -		○	
10	任善伯묘표(舊) 永興府使	청뜰	1690 碑座圓首	任相元 - -	○		
11	任善伯묘표(新) 永興府使	청뜰	1987 碑座圓首	任相元 任昌宰 -		○	
12	任幹 묘표 右副承旨	청뜰	1987 碑座圓首	- 任希聖 -		○	
13	任希聖 묘소 直長	청뜰	朝鮮後期 碑座圓首	- - -		○	
14	任珽 묘표 弘文館應敎	청뜰	1766 碑座圓首	任希聖 姜世晃 -	○		
15	任숙 묘표 通川郡守	청뜰	1987 碑座圓首	- - -		○	

區分	諱：碑 官職名	所在地 地名	建立年代 碑形態	撰書篆	拓本	資料	備考
16	任奇 묘표 展力副尉	청뜰	朝鮮後期 碑座圓首	- - -		○	
17	任叔英 묘갈 弘文館副修贊	청뜰	1704 碑座蓋石	李植 柳以升 -	○		
18	任胤元 묘표 大司諫	청뜰	1765 碑座蓋石	任希聖 任希雨 -	○		
19	任重 묘표 司憲府持平	청뜰	1987 碑座圓首	- 任相元 -		○	
20	任守迪 묘갈 都承旨	청뜰	1768 碑座蓋石	任希聖 任瑗 -	○		
21	任珽 묘표 知製敎	청뜰	朝鮮後期 碑座蓋石	- - -		○	
22	任守憲 묘표 司僕寺正	청뜰	1987 碑座圓首	- - -		○	
23	任城 묘표(新) 大司諫	청뜰	1987 碑座圓首	- - -		○	
24	任城 묘표(舊) 直長	청뜰	1823 碑座蓋石	任希存 南以炯 -	○		
25	任量 묘표 都摠府都摠管	청뜰	1704 碑座蓋石	姜현 任守迪 -	○		



區分	諱：碑 官職名	所在地 地名	建立年代 碑形態	撰書 篆	拓本	資料	備考
26	任舜元 묘표 江原道觀察使	청뜰	1991 碑座圓首	任昌淳 - -		○	
27	任守朝 묘갈 成均進士	청뜰	1759 碑座圓首	尹彙貞 任璋 -	○		
28	任翊元 묘표 兵曹佐郎	청뜰	1759 碑座圓首	- - -	○		撰書 無
29	任行宰 기적비	청뜰	1975 碑座蓋石	任重燮 任元鎬 -		○	
30	庭平齋 (豊川任氏)	청뜰	1999	- 任昌宰 -		○	



강세황 선생이 쓴 任珖 묘표

## 金石文 踏查 現況 (2日次)

- 답사 일자 : 2001년 11월 13일(화요일)
- 답사 결과 : 총 28건 , 기존 확인 22건,  
신규조사 6건
- 탁본 대상 : 총 6건  
(신도비 2건, 묘갈 2건, 묘표 2건)
- 답사 목록

區分	諱 : 碑 官職名	所在地 地名	建立年代 碑 形態	撰書 篆	拓本	資料	備考
1	任孝達 묘갈 修撰官	초일42앞	1683 碑座圓首	任相元 尹深 -	○		
2	任崇老 묘표 昌樂道察訪	초1동 산 초일44앞	朝鮮中期 碑座圓首	- - -		○	
3	任尹 묘표 楊州牧使	초1동 산 초일44앞	1985 碑座平首	任昌淳 任昌淳 -		○	
4	任明弼 묘표 南部參奉	초1동 산 초일44앞	朝鮮中期 碑座圓首	- - -		○	
5	任明弼신도비 南部參奉	초1동 산 초일44앞	1995 龜趺螭首	任昌淳 任昌宰 -		○	
6	宜寧南氏묘표 愼夫人	초2동 319-5	朝鮮後期 碑座圓首	- - -		○	李沆 婦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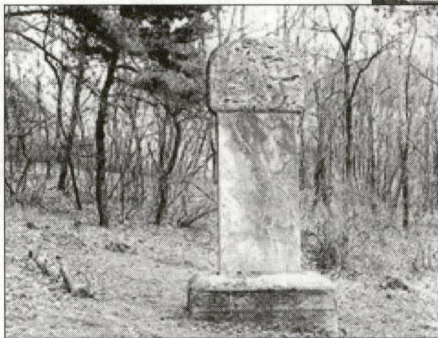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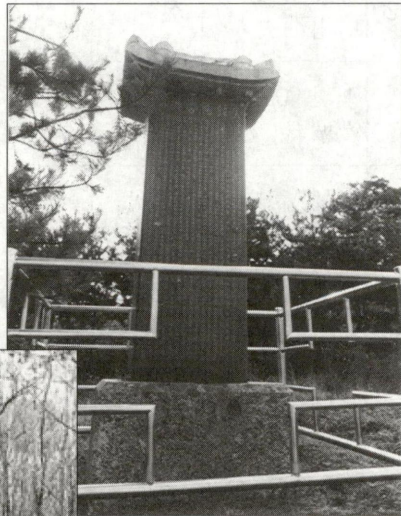
區分	諱：碑 官職名	所在地 地名	建立年代 碑形態	撰書篆	拓本	資料	備考
7	李琛 묘표 密城君	초2동 319-5	朝鮮後期 碑座蓋石	- - -		○	郷土遺蹟 第2號
8	李琛 신도비 密城君	초2동 319-5	1904 碑座蓋石	徐居正 安琛 -	○		
9	李重漢 묘장비	초2동 319-5	1963 碑座圓首	- 邊榮寅 -		○	
10	孝僖祠(崇慕閣) (全州李氏)	초2동 319-5	朝鮮後期	- 李重孝 -		○	
11	朴臺 묘표(舊) 都摠府都摠管	초2동 산20 其自山	1499 碑座奎首	- - -		○	
12	朴臺 묘표(新) 都摠府都摠管	초2동 산20 其自山	1970 碑座圓首	- - -		○	
13	朴臺 신도비 都摠府都摠管	초2동 산20 其自山	1985 龜趺螭首	任昌淳 任昌淳 -		○	
14	順興安氏묘표 通津縣夫人	초2동 산20 其自山	朝鮮中期 碑座圓首	- - -	○		朴臺 婦人 撰書 無
15	李銓 묘표 匡城副正	초2동 산 4 其自山	朝鮮中期 碑座圓首	- - -		○	
16	李濠 묘표(舊) 平陵正	초2동 산 4 其自山	1908 碑座蓋石	- - -		○	



區分	諱：碑 官職名	所在地 地名	建立年代 碑形態	撰書篆	拓本	資料	備考
17	李濠 묘표 (新) 平陵正	초2동 산 4 其自山	1998 碑座冠石	- - -		○	
18	李誠 묘표 雲山君	초2동 산 4 其自山	朝鮮中期 碑座冠石	- - -		○	
19	李誠 신도비 雲山君	초2동 산 4 其自山	1518 碑座螭首	南袞 金希壽 李彦浩	○		
20	鄭氏 묘표 烏川郡夫人	초2동 산 4 其自山	朝鮮中期 碑座冠石	- - -		○	李濠 婦人
21	李건 묘표 鐵城君	초2동 산 4 其自山	1995 碑座冠石	- - -		○	
22	李齡壽 묘표 海平守	초2동 산29-2	朝鮮後期 碑座圓首	- - -		○	
23	李好仁 묘표 司憲府監察	초2동 산29-2	朝鮮中期 碑座荷葉	- - -		○	
24	李당 묘표 春城君	초2동 산29-2	朝鮮中期 碑座圓首	- - -		○	
25	李鋼 묘표 固城君	초2동 산29-2	1540 碑座螭首	? 李楗 -	○		



區分	諱：碑 官職名	所在地 地名	建立年代 碑形態	撰書 篆	拓本	資料	備考
26	驪興閔氏 묘표 全義縣夫人	초2동 산29-2	朝鮮後期 碑座圓首	- - -		○	李綱 婦人
27	李沆 묘표 德平君	초2동 산29-2	朝鮮中期 碑座圓首	- - -		○	
28	李沆 묘갈 德平君	초2동 산29-2	1563 龜趺螭首	洪暹 宋寅 朴詠	○		



밀성군 신도비(상)와  
운산군 신도비(좌)

### 金石文 踏查 現況 (3日次)

- 답사 일자 : 2001년 11월 14일(수요일)
- 답사 결과 : 총 28건 , 기존 확인 5건,  
신규조사 23건
- 탁본 대상 : 총 10건  
(신도비 1건, 묘갈 8건, 묘표 1건)
- 답사 목록

區分	諱 : 碑 官職名	所在地 地 名	建立年代 碑 形 態	撰 書 篆	拓 本	資 料	備 考
1	永慕齋 (晉州鄭氏)	초2동 산	1930	- - -		○	
2	鄭百昌묘갈 觀察使	초2동 산13	1645 碑座圓首	李敏求 吳竣 -	○		
3	鄭陟묘표(舊) 大提學	초2동 산13	朝鮮初期 碑座荷葉	- - -		○	
4	鄭陟묘표(新) 大提學	초2동 산13	1991 碑座冠石	- - -		○	
5	鄭陟신도비 大提學	초2동 산13	1504 碑座冠石	魚世謙 - -	○		
6	鄭百亨묘갈 侍講院弼善	초2동 산13	1636 碑座圓首	許穆 柳以升 -	○		



區分	諱：碑 官職名	所在地 地名	建立年代 碑形態	撰書 篆	拓本	資料	備考
7	鄭孝成묘갈 觀察使	초2동 산13	1661 碑座圓首	李敏求 金佐明 -	○		
8	水原白氏묘묘 贈貞敬夫人	초2동 산13	朝鮮中期 碑座圓首	- - -		○	鄭孝成 婦人
9	南陽洪氏 묘 묘 贈貞敬夫人	초2동 산13	朝鮮中期 碑座圓首	- - -		○	鄭孝成 婦人
10	鄭元麟 묘갈 光陵參奉	초2동 산13	1560 碑座圓首	宋寅 宋寅 -	○		
11	固城李氏 묘 묘 贈貞敬夫人	초2동 산13	朝鮮中期 碑座圓首	- - -		○	鄭元麟 婦人
12	南原尹氏묘갈 贈貞敬夫人	초2동 산13	1663 碑座圓首	韓浚謙 徐必遠 -	○		鄭元麟 婦人
13	鄭善興 묘갈 尙衣院	초2동 산13	1663 碑座圓首	李敏求 申昇 -	○		
14	鄭誠謹 묘묘 左副承旨	초2동 산13	1991 碑座螭首	- - -		○	

區分	諱：碑 官職名	所在地 地名	建立年代 碑形態	撰書 篆	拓本	資料	備考
15	鄭誠謹신도비 左副承旨	초2동 산13	1534 碑座冠石	鄭士龍 - -	○		
16	鄭舟臣 묘갈 博士	초2동 산13	1661 碑座圓首	李睡光 申昇 -	○		
17	鄭善鳴 묘표 靈光郡守	초2동 산13	1979 碑座蓋石	- - -		○	
18	鄭梅臣 묘표 軍器寺判官	초2동 산13	朝鮮中期 碑座荷葉	- - -		○	
19	海州吳氏묘표 淑人	초2동 산13	1553 碑座荷葉	- - -		○	
20	鄭元瑞묘표 永春縣監	초2동 산13	1574 碑座荷葉	- - -		○	
21	鄭元祥묘표 兵馬節度使	초2동 산13	1589 碑座荷葉	- - -		○	
22	鄭百順묘표 刑曹正郎	초2동 산13	1663 碑座圓首	- - -		○	
23	鄭翹臣묘표 弘陵參奉	초2동 산13	1622 碑座冠石	- - -		○	
24	鄭銀海묘표 豐儲倉主簿	초2동 산13	朝鮮中期 碑座荷葉	- - -		○	



區分	諱：碑 官職名	所在地 地名	建立年代 碑形態	撰書篆	拓本	資料	備考
25	朴치 묘표 軍器寺正	초2동 산 초이 129 앞	1501 碑座荷葉	柳洵 - -	○		
26	朴基 묘표 坡州牧使	초2동 산 초이 145 앞	朝鮮中期 碑座螭首	- - -		○	
27	廉起仁묘표 通政大夫	초2동 산 송정마을	1916 碑座圓首	- - -		○	
28	石櫛 단비 侍郎	초2동 산 초이 200 앞	1998 碑座蓋石	石鎬瑾 李珍秀 -		○	



효자로 이름났던  
승정원 좌부승지 정성근의  
신도비

## 金石文 踏查 現況 (4日次)

- 답사 일자 : 2001년 11월 16일 (금요일)
- 답사 결과 : 총 30건 , 기존 확인 6건,  
신규 조사 24건
- 탁본 대상 : 총 3건  
(신도비 1건, 묘갈 1건, 묘표 1건)
- 답사 목록

區分	諱 : 碑 官職名	所在地 地名	建立年代 碑形態	撰書 篆	拓本	資料	備考
1	宣德齋 (全州李氏)	덕풍동 561	2001	- - -		○	
2	李未丁 묘표 同福縣監	덕풍동 산64	朝鮮後期 碑座奎首	- - -		○	
3	李鶴丁 묘표 利原君	덕풍동 산64	朝鮮後期 碑座荷葉	- - -		○	
4	東來鄭氏묘표 贈縣夫人	덕풍동 산64	朝鮮後期 碑座荷葉	- - -		○	李鶴丁 婦人
5	李千壽묘표 知山君	덕풍동 산64	朝鮮後期 碑座荷葉	- - -		○	
6	李未丁묘표 屏山君	덕풍동 산64	朝鮮後期 碑座荷葉	- - -		○	



區分	諱：碑 官職名	所在地 地名	建立年代 碑形態	撰書 篆	拓本	資料	備考
7	李茂生 묘표(舊) 宣城君	덕풍동 산64	朝鮮後期 碑座荷葉	- - -		○	
8	李茂生 묘표(新) 宣城君	덕풍동 산64	1940 碑座圓首	- - -		○	
9	李茂生 신도비 宣城君	덕풍동 산64	1937 碑座蓋石	李明翔 尹用求 閔丙奭	○		
10	韓氏 묘표 平山郡夫人	덕풍동 산64	朝鮮後期 碑座荷葉	- - -		○	李茂生 婦人
11	李遵道 묘갈 大邱都護府使	덕풍동 산64	1612 碑座冠石	尹根壽 金玄成 -	○		
12	永慕壇碑(11位)	덕풍동 산	1959 碑座圓首	- - -		○	
13	李합 묘표 豐山副尉	덕풍동 산	朝鮮後期 碑座荷葉	- - -		○	
14	李埵 묘표 大司諫	덕풍동 산	1996 碑座蓋石	- - -		○	
15	李濟運 묘표 長興庫奉事	덕풍동 산	1996 碑座蓋石	- - -		○	
16	李柁 묘표 熙寧君	덕풍동 산67	朝鮮初期 碑座荷葉	- - -		○	

區分	諱：碑官職名	所在地地名	建立年代碑形態	撰書篆	拓本	資料	備考
17	李柁 신도비 熙寧君	덕풍동 산67	1958 龜趺螭首	李祥鎬 - -		○	
18	平山申氏묘표 郡夫人	덕풍동 산67	1982 碑座蓋石	- - -		○	
19	李漣 묘갈 昌原君	덕풍동 산67	朝鮮中期 碑座荷葉	- - -		○	
20	崔氏 단비 淑儀	덕풍동 산67	1981 碑座蓋石	- - -		○	太宗後宮 李柁母親
21	李堪 묘표 花城君	덕풍동 산67	朝鮮中期 碑座荷葉	- - -		○	
22	李壽眞 묘갈 德義正	덕풍동 산67	1982 碑座蓋石	李明壽 - -		○	
23	李培 묘갈 寧原君	덕풍동 산67	1982 碑座蓋石	李壽贊 李淳弼 -		○	
24	李欽 묘갈 仁川副守	덕풍동 산67	1982 碑座蓋石	李允鎭 李周鎭 -		○	
25	李和 묘갈 臨海令	덕풍동 산67	1982 碑座蓋石	李榮根 李東柱 -		○	
26	兪昌濬 묘표	덕풍동 산	1998 碑座蓋石	- - -		○	



區分	諱：碑 官職名	所在地 地名	建立年代 碑形態	撰書 篆	拓本	資料	備考
27	仁華李氏묘표	덕풍동 산 25-1	1748 碑座圓首	李基德 李光運 -	○		李唐 婦人
28	李之剛신도비 世子副賓客	덕풍동 산 수리골	1984 龜趺螭首	安浩相 李塚鍊 -		○	
29	沈樞 묘표 全羅兵使	천현동 산 392-1	1964 碑座蓋石	- - -		○	
30	沈尙奎 묘표 戶曹佐郎	천현동 산 392-1	1964 碑座蓋石	- - -		○	



선성군 이무생 신도비

이명상 찬  
윤용구 서  
민병석 전  
1937년 건립

## 金石文 踏查 現況 (5日次)

- 답사일자 : 2001년 11월 17일(토요일)  
10:00 ~ 16:30
- 답사 결과 : 총 21건 , 기존 확인 13건,  
신규 조사 8건
- 탁본 대상 : 총 3건(신도비 1, 묘갈 1, 묘표 1)
- 답사 목록

區分	諱 : 碑 官職名	所在地 地名	建立年代 碑形態	撰書 篆	拓本	資料	備考
1	朴萬弼 묘표 同知中樞府事	감북1동 산 35 삼우골	朝鮮後期 碑座圓首	- - -		○	
2	朴自興신도비 京畿道觀察使	감2동 산8 참새골	1999 龜趺螭首	金鍾求 朴永烈 朴仁鎬		○	
3	李煜 묘표 副護軍	감2동 산 참새골	朝鮮後期 碑座圓首	- - -		○	
4	朴春發 묘표 同知中樞府事	감북2동 산 93	朝鮮後期 碑座圓首	- - -		○	
5	李敬元 묘표 漢城府庶尹	감북3동 산 122-1	朝鮮後期 碑座圓首	- - -		○	
6	李恭 묘표 大興縣監	감북3동 산 122-1	1940 碑座蓋石	- - -		○	



區分	諱：碑 官職名	所在地 地名	建立年代 碑形態	撰書 篆	拓本	資料	備考
7	李場 묘표 判義禁府事	감북3동 산 122-1	朝鮮後期 碑座圓首	- - -		○	
8	李從生 묘표 (舊) 咸城君	감북3동 산 122-1	1497 碑座蓋石	崔溥 - -		○	判讀 不可
9	李從生 묘표(新) 咸城君	감북3동 산 122-1	1940 碑座蓋石	崔溥 李啓權 -	○		
10	珍原崔氏 묘표 貞夫人	감북3동 산 122-1	朝鮮中期 碑座荷葉	- - -		○	李從生 婦人
11	李從生 마충 咸城君	감북3동 산 122-1	近代 碑座圓首	- - -		○	
12	安鐵山 묘도비 司贍署令	감북3동 산 안촌	1999 碑座螭首	安秉薰 李章雨 -		○	
13	安承命 묘갈 河陽縣監	감북3동 산 안촌	1581 碑座圓首	尹根壽 韓濩 -	○		
14	金星慶 묘소 晉州牧使	감북3동 산 안촌	朝鮮初期	- - -		○	
15	金定卿 묘표(舊) 蓮城君	감북3동 산 안촌	朝鮮初期 碑座圓首	? - -		○	判讀 不可
16	金定卿 묘표(新) 蓮城君	감북3동 산 안촌	1945 碑座圓首	- -		○	

區分	諱：碑 官職名	所在地 地名	建立年代 碑形態	撰書 篆	拓本	資料	備考
17	金定卿신도비 蓮城君	감북3동 산 안촌	1863 碑座蓋石	申錫愚 洪顯周 洪顯周	○		
18	王氏 묘표 和惠宅主	감북3동 산 안촌	1468 碑座荷葉	- -		○	金定卿 婦人
19	威靖閣 (安山金氏)	감북3동 산 안촌	1982	- 金鎔采		○	
20	金益銓 묘표 司齋監正	감북3동 산 안촌	1519 碑座荷葉	- -		○	
21	安克思 묘표 吏曹參判	감북3동 산 안촌	1999 碑座螭首	姜希孟 -		○	



安承命 묘갈

尹根壽 撰  
韓 濩 書  
1581년 건립



## 金石文 踏查 現況 (6日次)

- 답사일자 : 2001년 11월 20일(화요일)
- 답사결과 : 총 11건 , 기존 확인 1건,  
                  신규 조사 10건
- 탁본 대상 : 총 9건  
                  (신도비 1건, 묘갈 2건, 묘표 6건)
- 답사 목록

區分	諱 : 碑 官職名	所在地 地名	建立年代 碑形態	撰書 篆	拓本	資料	備考
1	金佑漢 묘표 贈參議	광암동 산 넘바위골	1789 碑座圓首	- 洪聖源	○		
2	金志鼎 묘갈 嘉善大夫	광암동 산 넘바위골	1738 碑座圓首	- 金九齡	○		
3	金志亮 묘표 兵馬萬戶	광암동 산 넘바위골	1725 碑座圓首	高時彦 金世潤	○		
4	金命宗 묘갈 同知中樞府事	광암동 산 넘바위골	朝鮮中期 碑座圓首	李順男 金義信	○		
5	金禮俊 묘갈 副護軍	광암동 산 넘바위골	1705 碑座圓首	- -	○		撰書 無
6	金克俊 묘표 忠武衛副司勇	광암동 산 넘바위골	1728 碑座圓首	李翊臣 崔奇男	○		
7	金銀環 묘표 通政大夫	광암동 산 넘바위골	1603 碑座圓首	- -		○	
8	閔廣植 자혜비 承宣	춘궁동 산 춘궁118앞	1938 碑座蓋石	金奎演 閔衡植	○		
9	閔善鎬 묘표 弘文館副修贊	춘궁동 산 이성산성	1913 碑座蓋石	李根命 閔泳敦 -	○		

區分	諱：碑 官職名	所在地 地名	建立年代 碑形態	撰書 篆	拓本	資料	備考
10	閔應協신도비 大司憲	춘궁동85 춘궁92뒤	1692 碑座蓋石	閔黯 吳始復 李오	○		
11	尹興績 묘표 春秋館記主官	춘궁동 산 굴산머리	1982 碑座蓋石	- - -		○	



대사헌 민응협  
신도비

1692년 건립



## 金石文 踏查 現況 (7日次)

- 답사일자 : 2001년 11월 21일(수요일)
- 답사결과 : 총 12건 , 기존 확인 5건,  
신규 조사 7건
- 탁본 대상 : 총 2건  
(신도비 1건, 묘갈 1건, 묘표 0건)
- 답사 목록

區分	諱 : 碑 官職名	所在地 地名	建立年代 碑 形態	撰 書 篆	拓 本	資 料	備考
1	方然萬 묘표 學生	춘궁동 산 굴산머리	1987 碑座蓋石	- -		○	
2	朴興善 묘표 學生	춘궁동 산 굴산머리	1966 碑座蓋石	- -		○	
3	任鳳儀 묘표 副護軍	춘궁동산68 굴산머리	1686 碑座圓首	- -		○	
4	安湜 묘표 行司贍直長	감북3동 산 안촌	2001 碑座圓首	安鐸洙 -		○	
5	金琪午 묘표 處士	감북3동 산 안촌	1956 碑座蓋石	張斗泓 -		○	
6	金弼植 묘표	감북3동 산 안촌	1988 碑座平首	- -		○	
7	安潤孫신도비 大司憲	감북3동 산 안촌	1942 碑座蓋石	蘇世讓 安壽遠 -	○		
8	具程 묘표 長淵都護府使	감1동 산 능안	1968 碑座蓋石	具敏會 具命會		○	

區分	諱：碑 官職名	所在地 地名	建立年代 碑形態	撰書篆	拓本	資料	備考
9	具然台 묘표 孝子	감1동 산 능안	1998 碑座蓋石	- -		○	
10	成景濶 묘갈 工曹正郎	감1동 산 임정	1508 碑座螭首	申用漑 金希壽	○		
11	具徵 묘표 行內資寺直長	감1동 산 임정	朝鮮中期 碑座荷葉	- -		○	
12	具孝淵 묘표 長淵都護府使	감1동 산 임정	1636 碑座冠石	- -		○	



부제학 성경은  
묘갈

申用漑 撰  
金希壽 書  
1508년 建



## 金石文 踏查 現況 (8日次)

- 답사일자 : 2001년 11월 22일(목요일)
- 답사 결과 : 총 10건 , 기존 확인 4건,  
신규 조사 6건
- 탁본 대상 : 총 3건  
(신도비 1건, 묘갈 1건, 묘표 1건)
- 답사 목록

區分	諱 : 碑 官職名	所在地 地名	建立年代 碑形態	撰書篆	拓本	資料	備考
1	묘소입구표석 (俞泓)	하산곡 산 새능	1986 碑座蓋石	- -		○	
2	忠穆祠 (杞溪俞氏)	하산곡 산 새능		- -		○	
3	俞命爽 묘표 戶曹參判	하산곡 산 새능	1986 碑座圓首	- -		○	
4	俞策 묘갈 左承旨	하산곡 산 새능	1971 碑座圓首	- 俞賢濬		○	
5	俞大建 묘표 大司憲	하산곡 산 새능	朝鮮中期 碑座圓首	- -		○	
6	俞懋 묘갈 杞安君	하산곡 산 새능	1663 碑座蓋石	俞榮 閔鼎重 -	○		
7	俞纘曾 묘표 行刑曹正郎	하산곡 산 새능	朝鮮中期 碑座圓首	- -		○	
8	俞泓 묘표 左議政	하산곡 산 새능	1596 碑座蓋石	俞大進 韓濩 -	○		

區分	諱：碑 官職名	所在地 地名	建立年代 碑形態	撰書 篆	拓本	資料	備考
9	俞泓 신도비 左議政	하산곡 산 새능	1813 碑座蓋石	張維 俞漢芝 俞漢芝	○		
10	李億祺신도비 完興君	배알미 산 아랫매알미	1994 龜趺螭首	李殷杓 李珍秀 -		○	



좌의정 유흥 신도비(상)  
묘표(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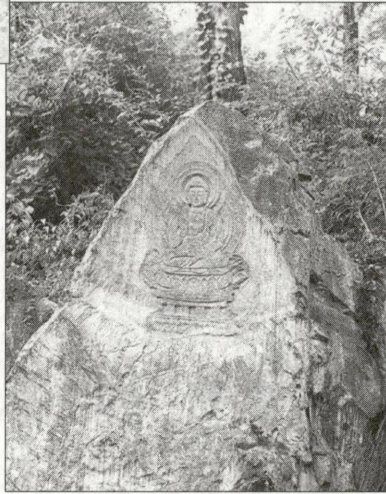
## 金石文 踏查 現況 (9日次)

- 답사일자 : 2001년 11월 23일(금요일)
- 답사결과 : 총 11건 , 기존 확인 10건,  
                  신규 조사 1건
- 탁본대상 : 총 5건 (신도비 1건, 묘갈 1건,  
                  묘표 2건, 암각 1건)
- 답사목록

區分	諱 : 碑 官職名	所在地 地名	建立年代 碑形態	撰書 篆	拓本	資料	備考
1	廣州鄉校하마비	교산동 227-4 궁안	朝鮮中期 碑座圓首	- -		○	
2	鄭基世 묘표 右贊成	교산동 68 객산	1885 碑座蓋石	鄭範朝 鄭寅昇	○		
3	鄭啓淳 묘표 大司諫	교산동 68 객산	1829 碑座蓋石	鄭元容 鄭允容	○		
4	鄭啓淳 신도비 大司諫	교산동 68 객산	1834 碑座蓋石	李相瓚 朴宗薰 鄭元容	○		
5	太平2年磨崖佛	교산동 산55 선법사	977 自然岩	- -	○		寶物 981號
6	李伯福 묘갈 捕盜大將	천현동 산 동경주	1987 龜趺螭首	- -		○	



區分	諱：碑 官職名	所在地 地名	建立年代 碑形態	撰書篆	拓本	資料	備考
7	四忠書院廟庭碑	상산곡동 100-2	1786 碑座蓋石	吳載純 洪樂性 金燧	○		
8	俞鎮午 묘표	상산곡산 산곡	1996 碑座蓋石	- 俞東潛		○	
9	俞致衡 묘표	상산곡산 산곡	1975 碑座蓋石	俞鎮午 金忠顯		○	
10	崔瑾 묘표 中樞府事	망월동산 394	1964 碑座蓋石	崔炳先 -		○	
11	金星禹현창비 殉教	망월동 구산성지	1977 碑座蓋石	오기선 이성숙		○	



사충서원 묘정비(상)  
태평이년명 마애불(우)

## 金石文 踏查 現況 (10日次)

- 답사일자 : 2001년 11월 26일(월요일)
- 답사 결과 : 총 7건 , 기존 확인 2건,  
                  신규 조사 5건
- 탁본 대상 : 총 1건  
                  (신도비 0건, 묘갈 1건, 묘표 0건)
- 답사 목록

區分	諱 : 碑 官職名	所在地 地名	建立年代 碑形態	撰 書 篆	拓 本	資 料	備考
1	朴慶應묘갈 五衛將	풍산동 산 98-1	1684 碑座圓首	李堂撰 李徵龜 李瑞雨	○		
2	朴信 묘표 玄豊縣監	풍산동 산 98-1	1684 碑座圓首	- -		○	
3	朴世敏묘표 繕工監直長	풍산동 산 98-1	1684 碑座圓首	- -		○	
4	朴億年묘표 昌信校尉	풍산동 산 98-1	1684 碑座圓首	- -		○	
5	南以溫묘표 吏曹參判	망월동 산 394	朝鮮後期 碑座圓首	- 李滋		○	
6	崔仁圭묘표 執事	덕풍3동 산 덕풍 12 앞	近代 碑座平首	- -		○	
7	崔奉壽묘표	덕풍3동 산 덕풍 12 앞	1960 碑座蓋石	- -		○	



## 하남의 금석문

# 운산군 신도비

- 위 치 : 하남시 초이동 산4번지
- 연 대 : 중종 13년(1518)
- 크 기 : 전체 높이 295cm, 비신 165cm, 폭 82cm,  
두께 23cm
- 찬·서·전 : 남곤 찬, 김희수 서, 이언호 전



〈原文〉

秉忠奮義翊運靖國功臣顯祿大夫雲山君 謚謚恭昭公碑銘  
崇政大夫行吏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  
均館事同知經筵春秋館事南袞撰

嘉善大夫全羅道觀察使兼兵馬節度使李彥浩篆

奉正大夫守宗簿寺正兼承文院參校金希壽書

古之所謂貴戚之卿者當平世則隱然有維城之固不幸而遇  
艱危則翊衛王室有弘濟之美若雲山公者可謂近之依謹按璿  
源譜牒我 世宗第十二子曰密城君諱琛寔聘驪興閔氏景泰癸  
酉生公諱誠字慎翁幼聰秀俊爽大爲 世祖眷憐年十二特授正  
義大夫封雲山君命侍左右親授經史時承密旨傳宣于外敷奏  
詳允 上益重之進階承憲及成宗卽位尤加禮異累增級至興祿  
常典宗簿寺都提調卽古之大宗正也公莊以磊職寬以不苛宗  
室敬憚莫敢爲非又管文昭殿司饗院事易于之際儀度閑整卒  
事無差觀者偉之燕山雖荒亂亦知敬公特階顯祿恕于極品時  
諶五日甚國步踰危公以宗姓元老義同休戚居常北北不自得  
但日飲無何而已而會大臣協策推戴聖明知公可屬大事遂以  
謨告之公曰此天命也乃馳詣潛邸贊決大計卽日奉衛 乘與卽  
位于景福宮策功 賜秉忠奮義翊運靖國功臣之號既而干就故  
常口不言國家事奉朝請惟勤每詣闕起居禮訖便還居第幅巾  
一室蕭然而已由是朝廷益知其賢正德庚午十二月十七日供  
徹恙卒于正寢明年三月初十日卜宅于廣州治西大德原矜耶  
之公先娶主簿郭得倫之女爲配生一女早逝繼室以鄭氏金提  
郡守自淑之女天順庚辰生封烏川郡夫人兵曹判書淵之孫以



門德歸于公璟儀之備一門則之既葬公第四月病疾逝而歿享年五十二是年八月十九日卽公制同塋而耶公事親色養處兄弟無間言其居內外喪廬于墓側朝輔之奠躬自供具喪畢遇俗節則必詣墓展省終身不小廢生長紈綺而能刮盡豪奢習惟以書史自娛暇則蒔花藝草以觀天機發生之妙 上自在潛邸雅尊敬之事有疑難或 親臨問至是病革 命賜御藥及訃聞輟朝二日賻賜有加太常諡以恭昭哀榮終始世所罕此有男三人長曰戡鐵城君次曰綱固城君次曰銓匡城副正女三人長適坡川君尹湯老卽郭出也次適參奉趙信忠次適幼學宋世英鐵城娶僉正柳仁濡女生一男曰濠平陵守女適洪恇疇固城娶直長閔賻女生二男二女女適申匡國匡城娶判官金由岳女生二男一女幼坡川生一男曰珍女適李昌仁參奉生三男三女皆幼幼學妻先公逝戊寅夏戡等將立石以狀來曰垂諸遠必得詞之無華者袞不敢辭乃作銘曰顯允密城世宗之穆振振雲山寔似寔續遇賞光廟年尙垂齒爵命驟加飾之金貂惟賢待以異數歷事累朝王曰伯父恩以日隆公一股駑扶危定傾不動聲色中興功成身退以默相在其室左圖右書物無我累方寸淡如朱虛平難東平爲善兼之一身今古所鮮名擅宗英勳歸麟閣一疾奄爾年五十八契龜卜兆原曰大德誰與附之厥有賢匹爰伐貞石勒之銘詞深谷可?高陵可夷恭昭之聲與國同垂

正德十三年戊寅四月二十八日立碑

〈번역문〉

병충분의 익운 정국공신 현록대부 운산군 익시공소공 비명

송정대부행 이조판서 겸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지성균관사 동지경연춘추관사 남곤(南袞)이 글을 짓고

가선대부 전라도관찰사 겸 병마절도사 이언호(李彦浩)는 전액을 쓰고

봉정대부 수종부시정 겸 승문원 참고 김희수(金希壽)는 글을 쓰다.

**예**전의 이른바 귀척(貴戚)의 경(卿)이란 평온한 세상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왕족 [維城]의 꾀꾀함이 있고, 불행하게도 어려움과 위태로움을 만나면 왕실을 보좌하고 호위해서 널리 구제하는 아름다움이 있었으니, 운산공이야말로 이에 가깝다고 할 만하다. 삼가 『선원보첩(璿源譜牒)』을 살펴 보건대 우리 세종대왕 열 두 번째 아드님이 밀성군 침(琛)이다. 이 분이 여흥 민씨에게 장가들어 경태 계유년(1453년, 단종 1)에 공을 낳았으니, 이름은 계(誠), 자는 신옹(愼翁)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수려하며 준수하고 건장하였다.

세조께서 귀여워하셔서 12세에 특별히 정의대부(正義大夫)를 제수하고 운산군으로 봉하였다. 좌우에서 모시



기를 명하고 친히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주셨다. 때때로 밀지(密旨)를 받들어 밖에 전하고 아뢰는 것이 자세하고 마땅하니 세조 임금께서 더욱 소중히 여겨서 품계를 승헌대부(承憲大夫)로 올렸다. 성종께서 즉위하시자 더욱 예를 남달리 하여 여러 차례 품계를 더해서 흥록상전(興祿常典) 종부시(宗簿寺)의 도제조(都提調)에 이르렀으니, 곧 예전의 대종정(大宗正)이다.

**공**은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너그럽고 가혹하지 않았으므로 종실들이 공경하고 어려워해서 감히 잘못을 저지르지 못했다. 또한 문소전(文昭殿)과 사옹원(司饗院)의 일을 주관할 때 의표와 도량이 한가롭고 가지런해서 일을 마칠 때 어긋남이 없었으니 보는 자들이 뛰어나다고 하였다. 연산군이 비록 주색에 빠져 정치를 어지럽혔으나, 역시 공을 공경할 줄 알아서 특별히 현록대부(顯祿大夫)를 제수함으로써 가장 높은 품계에 올려 놓았다. 이때 (연산군이) 과음하고 주정이 날로 심해져서 나라의 운명이 매우 위태로웠다. 공이 종실의 원로로서 의리상 기쁨과 슬픔을 같이해야겠기에 평소 근심으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여 날마다 술만 마실 뿐, 어찌 할 바를 몰랐다.

마침내 대신들이 계책을 합쳐서 중종 임금(聖明)을 추대할 때 공에게 큰 일을 맡길만 하다는 것을 알고 드디어 계책을 여쭙었다. 공이 “이것은 천명(天命)이다” 하고는 곧바로 잠저로 달려가 큰 계획을 도와서 결정하고, 그 날로 승여(乘輿) 받들어 호위하였다. (중종

이) 경복궁에서 즉위하자 공신에 책봉되었는데, 병충분 의익운정국공신(秉忠奮義邇運靖國功臣)의 호를 하사받았다.

(공신을) 수여받고는 곧 일상으로 돌아가 입으로 국가의 일을 말하지 않고 조회 받들기만 오직 힘써 하였으며, 매번 대궐에 나가 문안례를 마치면 바로 사는 집으로 돌아와서 폭건(幅巾)을 쓰고 집에서 조용히 지낼 따름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조정에서 더욱 그의 어진 것을 알았다. 정덕 경오년(1510년, 중종 5) 12월 17일에 가벼운 병환을 만나 정침(正寢=正殿)에서 돌아가셨다. 다음해 3월 초10일 광주 서쪽 대덕원에 산소자리를 잡아 장사지냈다.

공이 먼저 주부 곽득륜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딸 한 명을 낳고서 일찍 세상을 떠났다. 두 번째 부인 정씨는 김제군수 자숙의 딸로써 천순 경진년(1460)에 태어났고 오천군 부인에 봉해졌다. 병조판서 연의 손녀로 가문의 덕행을 지니고 공에게 시집와 안방 의절을 갖추었는데, 한 집안의 법으로 삼았다.

이미 공을 장사지내고 넉 달만에 병환으로 돌아가니 향년이 52세였다. 이 해 8월 19일에 공의 묘에 합장하였다.

공이 어버이를 섬길 적에 얼굴빛을 살펴 봉양하였으며 형제를 대할 적에 이간시키는 말이 없었다. 부모의 상[內外喪]을 당해서는 묘 옆에 여막을 짓고, 아침 저녁에 스스로 제구를 갖추어 몸소 전을 드렸다. 상을



마치고 속절(俗節)을 만나면 반드시 묘에 나가 성묘하였는데, 죽을 때까지 조금도 폐하지 않았다. 부귀한 집 안에서 낳고 자랐음에도 능히 호활하고 사치한 습관을 씻어버리고, 오직 글씨와 사서(史書)로써 스스로 즐겼으며, 여가가 있으면 꽃을 심고 풀을 길러서 천기(天機) 발생의 오묘함을 관상하였다. 임금(중종)께서 왕위에 오르기 전 [潛邸] 註 1106)부터 존경하여 의심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혹 직접 찾아가서 묻기도 하더니, 이에 이르러 병이 위독하자 어약을 하사하라고 명령하였다. 부음이 들리자 이를 동안 조회를 거두고 부의를 하사하면서 태상(太常)을 더하였다. 공소(恭昭)를 시호로 하였으니, 슬픔과 영화로움이 시종 한결같아 세상에서 비유할 바가 드물다.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맏아들은 갱(戡)으로 철성군(鐵城君)이고, 둘째 아들은 강(綱)인데 고성군(固城君)이며, 셋째 아들은 전(銓)인데 광성부정(匡城副正)이다.

세 딸이 있는데 큰딸은 파천군(坡川君) 윤탕노(尹湯老)에게 시집갔으니 곧 곽씨 소생이다. 다음은 참봉 조신충(趙信忠)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유학 송세영(宋世英)에게 시집갔다. 철성군은 첨정 유인유(柳仁濡)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한 명을 낳았는데 (이름은) 호(濠)로 평능수(平陵守)이고, 딸은 홍서주(洪怡疇)에게 시집갔다.

고성군이 직장(直長) 민은(閔賻)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 2녀를 낳았는데, 딸은 신광국(申匡國)에게 시집갔

다. 광성부정은 판관(判官) 김유악(金由岳)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 1녀를 낳았는데 어리다. 파천군(윤탕노)이 아들 한 명을 낳았으니 진(珍)이며, 딸은 이창인(李昌仁)에게 시집갔고 참봉(조신충)이 3남 3녀를 낳으니 모두 어리다. 유학(송세영)의 처는 공보다 먼저 죽었다.

무인년 여름에 갱(戡) 등이 장차 비를 세우려고 (공의) 행장을 가지고 와서 “먼 데 까지 전할려면 반드시 글의 화려함이 없는 것을 얻어야 합니다” 라고 하기에 내(남곤)가 감히 사양을 못하고 이에 명을 지어 말하기를,

현달하고 믿음직한 밀성군은 세종대왕의 아드님이다. 인자하고 후덕한 운산군은 밀성군을 닮았고 세조대왕에게 총애를 받아서 나이 아직 어릴 적에 작(爵)과 명(命)을 급히 더해서 금관자로 장식하였다.

생각하니 현명하여서 남다른 운수로 대우하고 여러 임금을 두루 섬겼다.

왕은 백부라고 말하며 은혜가 날로 융성했다. 공이 한번 구부리고 굽혀서 위태로움을 붙들고 기울어진 것을 정함에 맡과 안색을 변하지 않고 중흥의 공을 이루었다. 몸이 물러가 침묵으로 그 집에 있었는데, 봄에 왼쪽은 그림이요 바른쪽은 글씨이며 물건은 나를 더럽히지 않고 방촌(方寸 - 마음)이 담담했으며 주허(朱虛)는 난리를 평정했으며 동평(東平)은 착한 일을 하였는데 한몸에 겸한 것이 예전이나 지금도 적은 바이다. 이



름을 종실에 떨치고 훈업은 기린각에 돌아갔다. 병으로 돌아가니 나이 58세이다.

부부를 함장하였는데, 그곳을 대덕원(大德原)이라 한다. 누구로 더불어 하편할꼬. 그 어진 배필이 있다. 이에 돌을 다듬어서 명을 새기니 깊은 골짜기는 가히 막혀질 것이고 높은 언덕은 가히 편편할 것이다. 공소공의 명성은 나라와 함께 전할 것이다.

정덕 13년(1518) 무인 4월 28일에 비를 세우다.

---

▶참고자료◀

- 1) 『완산이씨 밀성군파 세보 권지일』 <운산군신도비>
- 2) 『하남시사료집』 2, 하남문화원
- 3) 『하남시사』

## 우리 고장의 역사인물

# 운산군 이계

조선전기의 종실로 아버지는 세종의 12자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이고, 어머니는 여흥 민씨이다. 이름은 계(誠), 자는 신옹(愼翁)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세조의 귀여움을 받았다. 12세에 정의대부(正義大夫)를 제수받고, 세조가 직접 사서(史書)와 경서(經書)를 가르쳤다. 그뒤 그는 밀지를 잘 받들어 정2품 승헌대부(承憲大夫)에 올랐으며, 1468년(예종 즉위) 10월에 운산군(雲山君)에 봉해졌다. 성종이 즉위한 후, 1472년(성종 3) 정월 종묘에 부제할 때 헌관인 그에게 안구마(鞍具馬) 1필을 하사하고, 1484년(성종 15) 4월 소덕대부(昭德大夫) 운산군(雲山君)으로 봉하였다.

이듬해 4월 다시 흥록대부 운산군(雲山君)으로 삼았고, 흥록상전 종부시(興祿常典宗簿寺)의 도제조(都提調)에 이르렀다. 일을 시행하는데 너그럽고 가혹하지 않아, 종실들이 공경하여 감히 잘못을 저지르지 못했다고 한다. 또 문소전(文昭殿)과 사옹원(司饗院)의 일을 주관할 때에도 어긋남이 없어 보는 이들이 뛰어나다고 하였다 한다.

1493년(성종 24) 3월 종친의 병을 살피는 것에 대한 불만스러운 점을 상소하였다. 그는 “신 등이 만약 병들었다고 보고하면 종부사에서 살펴보고도 믿지 못해 또다시 가까운 이웃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동반(東班)의 조사(朝士)들은 비록 참봉(參奉)만 되어도 병들었다고 보고하면 다시 묻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친에게는 이와 같으니, 이는 전하께서 종친을 가까이 하시는 뜻에 어긋납니다” 고 하였다. 1504년(연산군 10) 죄에 연루되었으나, 지위가 높고 오랫동안 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를 지냈다 하여 죄를 모면하였다. 이러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를 가장 높은 직품인 현록대부(顯祿大夫)를 내렸다. 한편, 대신들이 연산군을 내쫓고 중종을 추대할 때 이를 도와 그 공으로 그는 병충분의익운정국공신(秉忠奮義翊運靖國功臣)의 호를 받았다. 1509년(중종 4) 6월 종친부·종부시·사옹원의 제조가 되었으나, 대간은 그가 의롭지 않은 일을 많이 행하였기 때문에 제조가 되기에 알맞지 않은 사람이라 반대했다. 왕은 “운산군이 의롭지 못한 일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종부시의 유사는 의례로 지위 높은 종실을 임명하는 것이니 또한 교대할 수 없다” 면서 거부하였다. 그러나 대간과 대신들의 계속되는 비판을 견디지 못해 벼슬을 그만 두고 조회만 받들었다. 그 후 매번 대궐에 나가 문안례를 마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소일하였다.

1510년(중종 5) 12월 17일에 죽었고, 1511년(중종

6) 3월 초10일에 광주 서쪽 대덕들(大德原 : 현재의 하남시 초이동)에 장사지내고 공소(恭昭)의 시호를 내렸다. 첫째 부인은 주부 곽득륜(郭得倫)의 딸로 딸 하나를 낳고 죽었고, 재취 정씨는 김제군수 정자숙(鄭自淑)의 딸로 1460년(세조 6)에 태어나 시집왔는데 운산군을 장사지내고 4개월만에 병으로 죽으니, 이해 8월 19일 운산군의 묘에 합장하였다. 운산군과 정씨 사이에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첫째 아들은 이갱(李戡)으로 철성군(鐵城君)이고, 둘째 아들은 이강(李綱)으로 고성군(固城君)이며, 셋째 아들은 이전(李銓)으로 광성부정(匡城副正)이다. 딸이 3명 있었는데, 큰딸은 곽씨 소생으로 파천군(坡川君) 윤탕노(尹湯老)에게, 둘째 딸은 참봉 조신충(趙信忠)에게, 셋째 딸은 유학 송세영(宋世英)에게 시집갔다. 1518년(중종 13) 4월 28일 남곤(南袞)이 찬한 신도비가 초이동에 있다.

▶참고문헌◀

- 1) 『朝鮮王朝實錄』
- 2) 『雲山君神道碑』



## 우리 고장의 역사인물

# 암행어사 이견창

1852(철종3) - 1898

### 암행어사 이견창은

하남지역에서 출생한 인물은 아니지만

현재 하남시 감북동 동사무소 앞에

그의 영세불망비가 서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역시 암행어사로서의 행적이 있었기에  
인물 소개를 하고자 한다.

이견창은 조선 말기의 문신·대문장가. 본관은 전주. 소명(小名)은 송열(松悅). 자는 봉조(鳳朝, 鳳藻), 호는 영재(寧齋). 이조판서 시원(是遠)의 손자로 증이조참판 상학(象學)의 아들이다. 할아버지가 개성유수로 재직할 때 우수관아에서 태어나 출생지는 개성이나 선대부터 강화에서 살았다.

할아버지로부터 충의와 문학을 바탕으로 한 가학(家學)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5세에 문장을 구사할 만큼 재주가 뛰어나 신동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장성한 뒤에

는 모든 공사(公私) 생활에서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강위(姜瑋)·김택영(金澤榮)·황현(黃玹) 등과 교분이 두터웠다. 용모가 청수(淸秀)하였으며, 천성이 강직하여 부정 불의를 보면 추호도 용납하지 않았고 친척·지주(知舊)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처단하였다. 일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의례적인 의식이나 양보가 없이 소신대로 피력하는 성격이므로 인심포섭에는 도리어 결점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정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충간(忠諫)과 냉철 일변도의 자세는 벼슬길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1866년(고종3) 15세의 어린 나이로 별시(別試)문과(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나 나라에서도 너무 일찍 등과하였기 때문에 19세에 이르러서야 흥문관직에 벼슬을 주었다. 1874년 서장관(書狀官)으로 발탁되어 청나라에 가서 그곳의 황각(黃珏)·장가양(張家驥)·서보 등과 교류, 이름을 떨쳤다. 이듬해 충청우도 암행어사가 되어 충청감사 조병식(趙秉式)의 비행(非行)을 낱낱이 들쳐내다가 도리어 모함을 받아 벽동으로 유배되었고 1년이 지나서 풀려났다. 공사에 성의를 다하다가 도리어 당국자의 미움을 사 귀양까지 갔으며, 그 뒤 벼슬에 뜻을 두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임금이 친서로 “내가 그대를 아니 전과같이 잘하라”는 간곡한 부름에 못 이겨 1880년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가서 관리들의 비행(非行)을 파헤치는가 하면, 흉년을 당한 농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식량문제 등 구휼(救恤)에 힘썼다. 한편, 세금을 감면하여 주기도 하여 백성



들로부터 환심을 얻어 그의 불망비(不忘碑)가 각처에 세워졌다.

그 뒤 어버이상을 당하여 6년간 집상(執喪)을 마치고 1890년 한성부 소윤이 되었다.

당시 나라안에 거류하는 청국인과 일본인들이 우리 백성들의 가옥이나 토지를 마구 사들여 방관하는 사이에 그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그들이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문제를 일으킬 것에 대비, 시급히 국법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팔아 넘기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그 때 우리 나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홍장(李鴻章)의 부하인 청국공사 당소의(唐紹儀)가 한성소윤의 상소내용을 알고 화가 나서 공한으로 “청국사람과의 가옥이나 토지 매도를 금한다는 조항이 조약상에 없는데 왜 금지조치를 하려는가.”라고 항의하였다. 이에 그는 “우리가 우리 국민에게 금지시키는 것인데 조약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일축하였다. 그러자 당소 의는 이홍장과

항의를 빙자하여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금지령을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단념하지 않고, 만약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판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다른 죄목으로써 토죄하고 가중처벌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기미를 알아차린 백성들은 감히 외국과 매매를 못하게 되니, 청국인들도 하는 수없이 매수계획을 포기하게 되었다. 1891년 승지가 되고 다음 해 상소사건으로 보성에 재차 유배되었다가 풀려나서 1893년 함흥부의 난민(亂民)을 다스리기 위하여 안핵사(按覈使)로 파견되어 그곳에서 관찰사의 죄상을 명백하게 가려내어 파면시켰다. 임금도 지방관을 보낼 때에 “그대가 가서 잘못하면 이견창이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공사를 집행하는 그의 자세는 완강하고 당당하였다. 갑오경장 이후로는 새로운 관제에 의한 각부의 협관(協辦)·특진관(特進官) 등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거절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1896년 해주관찰사에 제수되었으나 극구 사양하다가 마침내 고군산도로 세 번째 유배되었다가 특지(特旨)로 2개월이 지난 뒤에 풀려났다. 그 뒤 향리인 강화에 내려가서 서울과는 발길을 끊고 지내다가 2년 뒤에 47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저서 『당의통략(黨議通略)』은 과당을 초월하고 족친을 초월하여 공정한 입장에서 당쟁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기술한 명저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원래 그의 문필은 송대의 대가인 증공(曾鞏)·왕안석(王安石)의 영향을 받았으며, 정제두(鄭齊斗)가 양명학(陽明學)의 지행합일(知行合一)의 학풍을 세운 이른바 강화학파



(江華學波)의 학문태도를 교훈받고 실천하였다. 한말의 대문장가요 대시인인 김택영이 우리 나라 역대의 문장가를 추송 할때에 여한구대가(麗韓九大家)라 하여 아홉 사람을 선정하면서 그 최후의 사람으로 이견창을 꼽은 것을 보면 당대의 문장가라기보다 우리나라 전대(前代)를 통하여 몇 안되는 대문장가의 한사람임에 손색이 없을 듯하다. 글씨에도 뛰어났으며, 성품이 매우 곧아 병인양요 때에 강화에서 자결한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개화를 뿌리치고 철저한 척양척왜주의자로 일관하였다.

---

▶참고자료◀

이장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우리고장의 역사인물

# 문숙공 이지강

조선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중잠(仲潛)으로, 관전교시사(判典校寺事)를 역임한 이집(李集)의 아들이다. 그는 1382년(우왕 8) 과거에 급제하여 중서문하성의 녹사(錄事)를 거쳐 1392년(태조 1) 기거주(起居注)로서 조선의 건국에 참여하였다. 1393년(태조 2) 6월 현빈 유씨의 일을 논하다가 순군옥에 갇혔으나, 같은해 6월 공신인 까닭에 사면되었다. 이방원(李芳遠)의 측근으로, 이방원이 즉위한 뒤 사헌부 장령으로서 풍기 단속과 개국공신의 제거에 앞장섰다. 1407년(태종 7) 4월 을과(乙科) 제2등(第二等)에 급제하고, 예문관 직제학에 특별히 임명되어 토지 40결을 하사 받았다. 곧이어 판선공감사(判繕工監事)가 되어 조선초기 궁궐 수축에 힘썼으며, 수원부사가 되어 민정을 직접 다스리기도 하였다. 1411년(태종 11) 예조참의로서 충청도·전라도 경차관에 임명되어 민정을 순찰하고 관리의 탐학을 밝혀 탄핵, 파직시켰다. 그후 이조참의를 거쳐 1414년(태종 14) 12월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정월 경상도관찰사·충청도관찰사



경북 영해로 이장해 가기 전의 이지강 묘

를 거쳐 1416년(태종 16) 한성부윤이 되어 도성의 살림을 주관하였다. 이듬해 다시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하고 다시 내직으로 옮겨 호조참판·형조참판을 지냈다. 1418년(태종 18) 3월 사헌부(司憲府)에서 형조참판이었던 그를 상소하여 죄를 청하였다. 그러나 태종은 이지강이 이미 간원(諫院)의 탄핵을 당하여 정부와 육조(六曹)에서 함께 의논하여 죄를 정하였으니 다시 청할 수가 없다면서 이지강을 두둔하였다. 그후 곧바로 함길도관찰사(咸吉道觀察使)로 복직되었고, 3일 후 다시 호조참판 세자좌부빈객(世子左副賓客)으로 임용되었다.

1419년(세종 1)에는 세종이 즉위하자 호조참의 동지경연사(戶曹參議同知經筵事)로 임명되고 부사로서 명나

라에 다녀왔으며, 평안도관찰사·이조참판을 역임하고 다시 호조참판이 되어 재정체계를 바로 잡는 데 힘썼다. 1420년(세종 2) 호조판서, 이어 1421년(세종 3) 7월 예조판서, 1422년(세종 4) 9월 호조판서, 1424년(세종 6) 6월 참찬 겸 대사헌, 참찬 등을 지내고, 1425년(세종 7) 7월 중군도총제(中軍都摠制)가 되어 군권을 총지휘하게 되었으나, 다음달인 윤6월에 병으로 사임하였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며, 그의 묘는 할머니 인화(仁華) 이씨가 있는 덕풍2동에 있었는데 2001년도에 43번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경북 영해로 이장하였다.

▶참고문헌◀

- 1) 『하남시사』
- 2) 『朝鮮王朝實錄』
- 3) 『廣州郡志』
- 4) 『城南市史』
- 5) 『京畿人物誌』
- 6) 『서울六百年史』
- 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하남의 집성촌

### 광주이씨 (廣州李氏)

광주이씨의 시조 자성(自成)은 칠원(漆原 : 지금의 咸安谷)에서 호족(豪族)의 후예로서 신라 제17대 내물왕 때 내사령(內史令) 벼슬을 지냈으며 신라시대에 벼슬을 대대로 세습하여 오다가 제56대 경순왕(敬順王)이 고려(高麗)에 항복하자 이에 따르지 않으므로 이에 고려의 태조가 칠원성을 함락시킨 후 그곳 백성들을 모두 회안(淮安 : 지금의 경기도 광주)으로 이주시켜 역리(驛吏)로 복역케 하였다. 이 때부터 이자성의 후손들은 고려의 이속(吏屬)으로서 360여 년 간을 대를 이었으며 아전(衙前)의 신분으로서 사족(士族)들과 사귀지도 못하고 과거(科擧)에도 응시하지 못함으로써 뚜렷한 기록이 없었다.

그러다가 고려시대의 원종 무렵에 와서 향리(鄉吏)의 신분으로서 과거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이때부터 본관을 광주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광주이씨의 실질적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는 중흥조 당(唐)이다. 그는 광주의 아전을 지내다가 생원이 되었으며 그의 아들 다섯이 모두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 중 둘째 아들 둔촌 집(遁村 集)이 고려말의 학자로 충목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정몽주·이색·이숭인 등과 깊이 교류하였다.

집(集)의 첫째아들 지직(之直)은 형조참의로서 태종 때 청백리에 녹선되었고, 둘째아들 지강(之剛)은 세종 대왕이 세자일 때 좌부빈객(左副賓客)을 지낸바 있고, 성주목사(星州牧使)를 지낸 셋째 아들 지유(之柔) 등 세 아들이 모두 현달하였다.

율정 관의(栗亭 寬義), 석탄 양중(石灘 養中), 암탄 양몽(巖灘 養蒙) 등 고려말의 학자와 판관을 배출하여 이름난 가문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후에 집(集)은 구 천면(龜川面 : 지금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지역)에서 살게 되고 관의(寬義)는 이천에서, 양중과 양몽 형제는 각각 광주군 동부읍 취동(鷲洞 : 현재 하남시 덕풍동 수리골)과 광주군 실촌면 원적산(元積山) 아래에서 은둔 하며 지내다 죽으니 그 후손들이 이 지역에서 번성하게 되었다.

영의정에 추증된 자령(自齡), 두문동 72현 중 한분인 수생(遂生), 좌찬성(左贊成)을 지낸 손(孫), 중종 반정의 공신인 성언(誠彦), 한성판윤(漢城判尹)에 추증된 천기(天奇), 병조참의를 지낸 극규(克圭), 영의정에 추증된 인손(仁孫), 공조참판 예손(禮孫), 영의정 극배(克培), 좌의정에 증직된 극감(克堪), 호조판서 극증(克增)과 호조판서를 지낸 극돈(克墩), 좌의정 극균(克均), 예조와 공조참판을 지낸 극기(克基), 영의정을 지낸 준경(浚慶), 호조판서를 지낸 덕형(德馨) 등 유명인



을 배출하였다.

광주이씨는 상신(相臣) 5명, 문형(文衡) 2명, 청백리 5명, 공신 12명, 조선시대에만 188명의 문과, 274명의 무과 급제자와 242명의 진사시(進士試) 출신을 배출한 명문가이다. (덕풍2동 지역에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오늘날 산업화가 되면서 그 후손들이 서울 등 외지로 나가면서 집성촌의 흔적은 점차로 사라져 가고 있으나 감일동 지역에도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었다.

감일동 지역에 세거를 이룬 것은 영동정공(命同正公) 파의 후손들이다. 영동정공파는 고려시대 원종 때 직찬 성사판도시사(直贊成事版圖寺事)를 지낸 익비(益庇)를 일세로 하여 계속 대를 이어왔으며 감일리에서 10여대를 이어오고 있다.

영동정공파 후손이 감일리 지역에 세거를 열게 된 것은 조선 세조10년인 1464년에 태어난 9세 영(榮) 전후로 보여진다. 9세손인 영(榮)의 묘가 정림(靜林)에 있다고 족보에는 기록하고 있으며 그의 묘와 더불어 큰아들 산석(山石)과 둘째 흥석(興石)과 손자의 묘가 같은 곳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13세손인 낙(洛), 좌승지 겸 경연 참찬직을 추증 받은 14세손 관(寬)이후로 감일동 지역에 거주하였고 그 후 후손의 일부는 고양시 벽제부근으로 이주하고 寬의 4자 정만(廷萬)의 후손이 오늘날의 감일동 지역에서 대를 잇고 있는 것이다.

특히 15세 정만은 남한산성 아래에 입향한 중조(中祖)로서 장자인 민행(敏行)의 귀덕(貴德)으로 가선대부



이민행 호패 ▲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부총관에 증직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6세인 장자 민행(敏行)은 숙종 17년(1691)에 출생하여 무과에 급제하고 단천부사, 흥양, 운암, 남천, 곡산, 박천, 풍천, 제천 영장(營將)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그의 교지와 호패를 8대손인 현 하 남문화원 이용우 원장이 보존하고 있다.



[묘·사·서원·영당·정려·행의문 기록표]

구 분	성 명	소 재 지
구암서원	이 집	경기도 광주
구암서원	이 양 중	경기도 광주
설봉서원	이 관 의	경기도 이천
선 조 묘	이 준 경	
구계서원	이 준 경	충북 청안
용연서원	이 덕 형	경기도 포천
근암서원	이 덕 형	경북 상주
소수서원	이 덕 형	경북 영주
충 민 사	이 상 안	평남 안주
팔봉서원	이 연 경	충북 충주
운곡서원	이 지 적	경남 창녕
보천서원	이 은	전남 영광
남촌서원	이 약 해	전북 익산
우 정 사	이 약 수	충남 대흥
희연서원	이 윤 우	경북 성주
사양서원	이 윤 우	경북 칠곡
오산서원	이 윤 우	함북 회령

▶참고문헌◀

- 1) 한국인의 족보,
- 2) 하남지명지,
- 3) 이철재, 돋보기로 본 하남
- 4) 광주이씨족보 대동보록(권1)

## 하남의 집성촌

# 온양 방씨

온양 방씨는 신라시대 당(唐)의 문화사절로 왔다가 귀화한 방지(方智)를 시조로 한다. 이어 상주(尙州) 출신으로 고려 태조·왕건을 도와 광종대에 상서좌복야에 오른 방운(方雲)을 중시조로 하는데, 그가 만년에 온수군(溫水君)으로 봉하게 되면서부터 상주를 버리고 온양을 본관으로 삼은 듯하다. 대략 9세 방희진(方曦進) 이래로 경기도 양주·광주·풍덕 등의 지역에 온양 방씨의 묘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무렵부터 서울을 비롯한 경기지역에 세거한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에는 춘궁동 버구리 마을에 판서(判書)공파 파조 방서(方曙)의 13세손인 방현(方鉉)이 1634년부터 세거하기 시작하였다고 전한다. 판서공파는 17세손 방강(方綱)이 황해도 연안으로 유배된 후, 대략 19세인 방득정(方得正)·방치정(方致正)의 대부터 양주·광주·개성 등지로 옮겨가 터를 굳혔다고 전한다.

### ▶참고자료◀

『하남시사』



## 하남의 집성촌

### 경주 김씨

경주 김씨는 경순왕의 셋째 아들 영분공(永芬公) 김명종(金鳴鍾)과 넷째 아들 대안군(大安君) 김은열(金殷說) 및 세계를 알 수 없는 장군공(將軍公) 김순웅(金順雄)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성씨다. 경주 김씨는 천년 이상된 가문으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 분파도 많다.

하남에 거주하고 있는 경주 김씨는 계림군과의 파조 김순웅의 13세손 김균(金匡)의 둘째 아들 김중성(金仲誠)의 12세손 김성좌(金聲佐)대부터 하남시 망월동 구산에 세거하면서부터 시작하였다고 한다. 김성좌의 4세손 김영춘(金永春)의 아들 김우집은 1839년(헌종 5) 기해박해(己亥迫害) 때 순교한 천주교 성인인데, 이를 미루어 보건대 경주 김씨가 하남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초기로 추정된다.

김우집은 1841년(헌종 7) 4월 29일 서대문 밖에서 처형되고, 그 동생들인 김만집과 김문집은 남한산성의 광주관아에서 각각 참수 순교하였다. 그리고 김우집의 아들 김성희(金聖熙)와 김만집의 아들 김차희(金次熙)도 역시 병인박해 때 체포되어, 1868년(고종 5) 남한산

성에서 순교하여 구산에 묻혔다.

김균은 고려말 밀직부사를 역임하고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참여하여 개국공신의 반열에 올랐고, 벼슬은 좌찬성에 이르렀다. 장군공의 후손 가운데 김균의 후손이 계림군(鷄林君)과가 된다. 계림군과는 김균의 둘째 아들 김중성(金仲誠)과 셋째 아들 김계성(金季誠)의 아들 대에서 다시 나뉘어진다. 김중성의 아들 김안민(金安民)이 감사(監事)공파, 김신민(金新民)이 부제학공파, 김인민(金仁民)이 관윤(判尹)공파로 나뉘어지고, 김계성의 아들 김종순·김종효·김종우가 공호(恭胡)공파로 나누어진다.

---

▶참고자료◀

『하남시사』



## 하남의 설화와 전설

# 하남시 설화조사를 위한 소고

유 병 상

(양평중학교 교사)

### 들어가는 말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지금은 어디서도 듣기가 어려워 졌다. 삼 사십대의 연령층만 하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옛날 이야기 한 구절 듣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는 매스컴이 아직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태어난 세대들이, 기나긴 겨울밤을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보내던 시절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어릴 적 불렀던 동요의 하나인 “부엌 부엌새가 우는 밤, 부어 춥다고서 우는 데 우리들은 할머니 곁에 모두 옹기종기 모여서 옛날 이야기를 듣지요.”하는 가사는 이제 옛 동요로나 불리어질 뿐이다. 그러한 정감 어린 겨울밤의 이야기에서나 들었던 ‘옛날 이야기’를 전문 용어로 “설화(說話)”라고 한다. 또는 문학적인 면에 강조

하여 “구비문학(口碑文學)”또는 “설화문학(說話文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옛날 이야기’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설화에 대한 현대적 의미의 수용(受用)은 어떠하며, 하남시의 설화에는 어떠한 유형의 설화가 있으며, 그 설화가 현재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의해보려는 게 이 글의 요지이다. 또한 설화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 생성 소멸되고 있다는 데에도 논의의 중점을 두려고 한다. 다만 현재의 설화는 매스컴의 발달과 과학적 인식 등으로 인하여 그 의미를 단순한 소문내지는 풍문으로만 인식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떤 설화가 생성하게 된 데에는 그 시대의 정치, 철학, 역사, 민심, 풍속 등등 수많은 민속학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看過)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을 통해서 진정한 설화를 인식할 때 그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고, 현재 삶의 의미도 괄목상대(刮目相對) 하게 될 것이다.

## 1. 설화에 대한 일반적 인식

일반인들이 설화(說話)라는 용어를 이해할 때에는 조금 낯 설은 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 이야기를 좀더 세분하여 전문적으로 살펴보

면 얼마든지 재미있고 쉽고 이해할 수 있다. 설화는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 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설화의 일정한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의 구조를 알아야한다. 또한 설화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 분류 방법은 거의 세계적인 통례(通例)로 되어 있다. 이러한 분류 방법을 따라서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신화(神話)

신화는 신에 관한 이야기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의 기원과 질서를 설명하는 이야기이며, 신성시되는 이야기이다. 또한 신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화를 진실되고 신성하다고 인식하며, 일상적인 경험으로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태초에 일어난 일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신화는 일상적인 사람들의 삶의 행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황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신화가 전해주는 의미 요소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장덕순에 의하면 ‘신화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통제의 기능이다.’라고 말하여 신화의 사회 통제 기능에 그 역점을 두어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신화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각 신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신화를 읽고 이해하는 재미가 한층 더할 것이다. 다만 문학적인 면에서 연구하는 사람의 경우는 이러한 신화의 발생계통, 연원, 사회적 성격, 신화의 인식 단계 등

많은 부분에서 연구되어야 하지만 일반인이라면 기본적인 성격만 알고 있어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대하는 신화에 관한 책으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신화에 관한 한 가장 많은 출판 부수를 자랑할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신화를 이야기할 때면 가장 많이 거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신화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신화에 대한 해석과 사회적 인식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서양 신화에 대하여는 많은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한국 신화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면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서양신화의 장대한 스케일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신화에도 그에 못지 않은 웅장한 서사형식의 신화가 있다.

## (2) 전설

전설의 최소 요건은 증거물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신화나 민담에 비해 대체로 단순한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지명설화, 또는 어느 집안의 시조설화, 어떤 사물에 관한 설화 등 많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전설은 인간의 한계로 생기는 불행을 민감하게 그려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기이한 이야기들이 주로 전설로 전해지게 된다. 실제로 하남시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설화들을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전설로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검단산에 전해지는 설화들을 분



류 해 본다면 전설이라는 용어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다. 전설은 그 이야기의 구조상 증거물을 중시하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바위에 관한 이야기 및 오래된 나무 등 그 종류가 많다. 여기에는 역사상의 인물과 관련지어서 전해지는 전설도 상당 수 있다. 특히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양란을 겪으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충성을 다했던 유명한 장수의 한 맺힌 이야기들이 바위에 연결 지어 전해지는 예는 허다하다.

### (3) 민담

민담은 글자 그대로 일반 평민들의 이야기를 말한다. 그야말로 이야기 주머니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민담이라고 한다. 아마도 설화 중에서 민담이 차지하는 양이 가장 많을 것이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부터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그 종류와 수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민담은 흥미로운 이야기이지만 진실성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그 진실성 또한 준엄하기 그지없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흥부와 놀부’,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고 온 영감’ 등의 민담을 보면 그 진실성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인해 단순히 흥미롭게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것은 일상생활을 하는 민중들의 권선징악(勸善懲惡)적인 생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론 모든 민담이 다 그러한 것은 아니다. 민담 속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당시의 생활상과 깊은 관련이 있기에 그 여망을

답아 자신들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상의 설화분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설화이해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러한 분류는 학자들의 연구를 위한 분류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세 가지 모두 큰 차이 없이 받아들여진다. 위 논의들을 전승하는 사람에 입장에서 간단히 정리해보면, 신화는 신성한 것이기에 신성성을 인정하는 민족에 속하는 사람으로서는 전승이 일종의 의무이기도 하다. 전설의 전승은 증거물과 결부되어 있다. 증거물을 늘 대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이것들과 관계시켜 전승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민담에서는 신성성도 없고, 전승의 이유는 오직 이야기 자체의 흥미와 의미일 따름이다.

## 2. 설화의 발생과 소멸

이러한 설화는 왜 생겨나는가? 또 생겨난 설화는 계속 유지되어 나가는가? 하는 문제도 논의해보아야 한다. 옛날에 그 많았던 이야기들이 계속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가면서 일반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왜 이야기가 발생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전승자들의 관심의 결여이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재미있던 이야기들이 시대가 변하다보니 더 이상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비근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일제 침략기 당시에 전설적인 독립운동가로 김일성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모래로 밥을 지어먹고, 하룻밤에 몇 백 리를 이동해 가는 축지법을 썼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북한 김일성이 사용하였고, 김일성의 진짜 이름은 김성주라고 한다. 하는 이야기는 많이 전승되던 설화이지만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지금은 거의 잊혀져 가고 또한 재미없는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마련이다. 이처럼 설화는 그 재미를 우선적으로 하고, 사회적 관심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기도 한다. 또한 지금도 설화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매스컴의 발달과 과학적 인식의 중요성 때문에 거의 믿지 않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많은 풍문이 과거에는 설화로서의 가치를 가지면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다만 설화의 발생은 현재진행형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 내용이 황당하거나 허무맹랑한 험잡성(挾雜性) 또는 시기(猜忌)성 등을 포함하고 있는 설화도 많이 있다.

### 3. 설화의 현대적 수용 양상

이러한 설화에 대하여 현재적 입장에서 논의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과거의 유산으로서의 계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화가 가지고 있는 사

회사적이고 교육적인 의미를 아울러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기드라마에 나타나고 있는 전체적 줄거리의 양상을 보면 “콩쥐팍쥐”유형의 드라마가 상당 수가 있다. 너무도 잘 알려진 대표적인 설화의 하나기에 부연 설명이 필요치 않지만, 드라마의 전개양상은 “콩쥐팍쥐”의 줄거리와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설화적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전통적인 사고인 “권선징악(勸善懲惡)”적인 요소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같은 의미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은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화가 보여주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설화의 현재적 수용은 한국인의 의식구조에서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어려서부터 읽었던 옛날의 동화는 어른이 되어서도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설화적 의식이 한국 사람들의 인식에 깊게 각인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설화의 틀 속에서 하나의 생활 관념과 사고(思考)의 틀을 형성해 간다고 할 수 있다.



#### 4. 하남시 설화에 대한 이해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남시의 설화에 대하여 알아보자. 하남의 대표적 상징으로 ‘검단산(黔丹山)’을 첫 번째로 손꼽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한 인터넷 신문에서 보도되었다. 이만큼 검단산은 하남시민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인근의 서울시민들에게도 좋은 휴식 공간의 하나이다. 그런데 검단산과 관련된 설화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다만 검단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지면 설화에 한해서는 하남문화원에서 발행한 여러 책자에 적혀 있기 때문에 지명의 유해 정도만 아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하남설화의 대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현재 조사하고 있는 설화만 하더라도 검단산에 얽혀 있는 설화는 엄청난 수에 해당한다. 다만 아직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아직 발표하기에 이르다.

또한 하남시에서 편찬한 ‘하남시사(河南市史)’에도 설화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며, ‘하남역사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설화는 현지조사에 의한 설화보다는 문헌설화(文獻說話)에 의존하고 있는 수준이다. 문헌설화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설화가 아니라 책에 실려 있는 설화’를 말한다. 특히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전하는 설화는 대표적인 문헌설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양반들의 문집에도 많은 수의 설화가 전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필자는 이러한

설화 중에서도 ‘도미설화’에 관심이 많이 간다. 그 이유는 ‘도미강’ 또는 ‘두미강’이라는 지명으로 팔당강의 한 부분을 일컫고 있기 때문이다. ‘도미설화’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미인이다. 백제의 개루왕은 도미의 아내를 빼앗고자 한다. 그러나 도미부인은 유부녀임을 이유로 백제왕의 제의를 거절한다. 백제왕은 도미의 눈을 빼어 장념으로 만든다. 도미와 도미부인은 거지가 되어 고구려로 도망가서 그 곳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간다.’하는 내용이다.

이 도미설화에 의해서 ‘도미강’이라는 지명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는 없다. 다만 고(故) 이철재 전문회원의 책에만 의존할 따름이다.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 또한 우리 하남시민들의 임무가 아닌가 한다.

## 나가는 말

이상에서 대강이나마 설화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다. 사실, 설화(이야기)가 살아가는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었던 과거와 매스컴과 인터넷 통신망의 발달로 인해서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는 현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화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이루면서 사고(思考)의 한



인자(因子)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설화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다.

하남시의 설화는 -하남시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설화까지 포함하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조사한 『한국구비문학 대계』에도 빠져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하남시의 설화를 조사하는 일은 크게는 한국구비문학 연구에도 일조(一助)하는 것이요, 작게는 하남시민들의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도 앙양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단순히 잊혀진 과거의 이야기로써만이 아니라 하남시민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조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설화문학개설』 장덕순, 삼문사.
- 2) 『설화문학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 3) 『하남시사』 하남시사편찬위원회.
- 4) 『하남의 역사』 이철재.
- 5) 『창작과 비평』 2001년 가을호

## 하늘의 설화와 전설

### 감북동 황새우물 이야기

감북동 광주 안씨의 중시조인 철산군 신도비 바로 옆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우물은 남한산에 살던 황새들이 부리로 쪼아서 만들었다고 한다. 우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물이 신비하여 동네 주민들이 우물의 물을 마시면 모두가 힘이 센 장사가 되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당시 이 감북동에서 장사가 많이 나서 왜적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니 왜적들은 겁이 나서 안씨 조상 묘를 파괴하였고 후손들은 묘를 이장하였다고 한다.



## 하남의 설화와 전설

### 황금밥과 백금반찬

조선 숙종 때 사색당으로 나뉘어  
 서로 당파싸움에 혈안이 되어 조정은 한낱 한시도  
 편한 날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관리들은 당파에  
 죽을 대기가 바쁘고 서로 중상 모략하여 자신이  
 득세하려고 하였다. 당파 싸움에 끼지 않고  
 매사에 조심하며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충신했던 중추부사 유명화(兪命華)도 자기  
 편을 들지 않는다고 미움을 사 상소에 올려지고  
 말았다. 탐관오리인 내물진 유명화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관직에서 내쫓기고 말았다. 유명화는  
 상산곡동에 낙향하여 초막을 짓고 자리를 잡았다.  
 그는 평소 위낙 결백하고 강직하여 가난하기  
 짝이 없었다. 하루 두끼의 밥도 조밥에 소금

반찬이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날 한양에서 같이 벼슬을 하던 이부사가 수소문 끝에 유명하를 찾아왔다. 먼길에 몹시 시장하였던 이부사는 요기를 원하였는데, 상을 받아본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유명하가 저녁에 먹으려고 차려 놓은 차디찬 조밥 한 덩어리와 소금 그리고 냉수가 전부였던 것이다. 유명하가 몹시 미안해 하였으므로 거절하면 친구의 마음이 상할 것 같아 이부사는 “아니, 정말 진수성찬이 아닌가. 황금 밥에 백금 반찬이라. 어디 상감인들 이런 것을 장수어 보시겠나. 듣던 대로 자네는 탐관오리였네 그려” 라며 식사를 마쳤다.

유명하의 맑고 고매한 생활은 왕에게까지 전해졌으며, 그는 다시 복직이 되어 양행어사가 되었다. 그는 전라도·경상도 일대를 돌며 그의 곧은 성품을 토대로 악정을 물리치는 데 헌신하였다고 한다.



## 막은데리 장군과 말의 이야기

객산 사창동에서 하산곡동으로 넘어가는 곳에 막은데리 고개가 있다.

옛날 한 장사가 전쟁에서 한살을 맞은 채 말을 타고 막은데리 고개를 넘어 산곡동 쪽으로 오는데, 말이 갑자기 세 발짝을 뛰면서 말과 장군이 죽었다고 한다.

동네 주민들은 겁이 나서 이들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쳐서 장군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지내고 말도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현재도 말무덤으로 전해 오는 고총 하나가 상산곡동 공영주차장 건설현장 동편에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달리던 말굽의 흔적이 막은데리 고개 바위에 남아 있다고 한다.

## 하늘의 설화와 전설

# 한 다리 이야기

### 힘

이 장사여서 별명이 한 장군이라고 붙여진 사람이 풍산동 온천마을에 살고 있었다. 하루는 한 장군이 큰 바위를 열심히 옮기고 있었다. 궁금히 여긴 마을 사람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물어 보았다. 한 장군은 마을 밖의 황산 쪽 도랑을 가리키며 그곳에 징검다리를 놓으려 한다 하였다. 이 도랑은 물이 조금만 불어나도 다리가 떠내려가 사람들은 다리 놓기를 포기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이 도랑 건너편으로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마을 사람들의 불편함을 생각한 한 장군은 큰 바위로 다리를 놓을 결심을 하였던 것이다.

한 장군은 한가한 겨울을 택하여 이 일을 시작했으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봄이 시작될 때 끝마쳤다. 더너물 사람들 뿐 아니라 진등·황산



사람들까지도 이 다리를 구경하러 모여들었고, 한 장군의 노고와 다리의 안전을 위해 고사를 지냈다. 모두 기쁨에 넘쳐 술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누군가 다리의 이름을 짓자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한 장군이 놓은 다리이니 ‘한다리’라 부르자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한 장군이 놓은 다리를 한다리라 부르게 되었고, 이곳의 길을 넓힌 1958년까지 한다리의 모습은 그대로 있었다.

지금은 이 길이 4차선 도로로 확장되어 한다리 얘기는 전설같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주인공 한 장군은 전설 속의 사람이 아니고 풍산동 온천마을에 살던 한정석(韓鼎錫)이라고 한다.

## 하늘의 민속

▽ ▼ ▽      ▽ ▼ ▽

# 감이동 우물제

감이동 정림마을의 우물고사는 우물에 정신(井神)이 있어 물을 마르게 하지 않는다는 속신과 결부되어 있다. 물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며, 맑은 물이 솟아나야 병 없이 장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물신을 모시는 것이다. 특히, 가뭄이 들어 물이 귀할 때나 도서지역처럼 물이 귀한 곳에서는 우물을 더욱 중요시하며, 우물고사 역시 자주 지낸다. 우물고사는 집에 있는 개인우물과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동우물에 지내는 고사로 나뉜다. 두레패도 당산곳을 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공동우물에 가서 우물고사를 올리고, 풀뺨이 하러 들어가는 집의 개인우물에도 우물고사를 올려준다. 우물고사를 지내기 전에는 우물을 퍼서 오물을 제거하고 지붕을 씻우거나 금줄을 쳐서 당분간 물을 먹지 못하게 한다.

우물고사는 조선 후기 전염병의 만연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로 다양한 역질(疫疾)이 생기면서 식수를 통한 전염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맑고 깨끗한 물이 솟구치기를 기원하면서



대동우물에 고사를 올렸던 것이다. 우물고사는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이루어진다. 겨울철의 우물고사는 마을 전체의 안녕을 비는 마을 곳의 하나로 이루어지고, 여름철의 우물고사는 두레작업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모내기를 할 때부터 김매기를 마칠 때까지 여름철의 농촌은 숨가쁘게 바쁘다. 그래서 마을의 공동 식수인 우물을 청소할 겨를이 없고 특히, 김매기철이나 장마철에는 우물의 물이 더욱 더럽혀지기 마련이다. 이런 까닭에 겨울철의 우물고사가 금수(禁水)는 하되 물을 퍼내는 청소를 하지 않는 것과 달리, 여름철의 우물고사는 반드시 물을 퍼내어 고사를 지내는 목적이 우물 청소에 있음을 말해준다. 하남을 포함한 경기도지역에서 넓게 확인되는 여름철의 우물고사는 여름철 노고를 달래주는 동네잔치였다. 지금은 고사가 많이 사라졌으나, 원래 이 고사는 전국에서 행해지는 보편적인 행사였다. 또한 이 고사는 고정적인 행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마을곳·두레곳 행사의 하나로 풍물패 행사만 간단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감이동 정림마을의 우물제는 매년 7월 초하루 날에 행해지고 있다.

## 하남의 민속

# 신장동 거리제



거리제는 신장2동에서 매년 음력 9월 초하루에 거행되는 행사로서 마을회관 옆에 있는 지름 15cm의 나무를 신목으로 하고 있다. 원래 이 신장2동의 신목은 천여 년이나 묵은 참나무 [떡갈나무]로서 그곳에서 마을의 평화·안녕·태평무사와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이 베풀어졌다. 그러나 수년 전 이 신목이 이유 없이 불에 타 버리자, 마을의 젊은 청년들 가운데 죽거나 실성하는 사람이 많아져 다시 산에서 나무를 옮겨다 심고 거리제를 거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거리제일이 되기 일주일쯤 전(음력 8월 20일 경) 마을의 주민 가운데 부정이 없는 노인 부부를 제관으로 삼는다. 제관이 정해지면 제관의 집 대문 앞에는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린다. 제관의 금기사항으로는 부부가 합방을 해서는 안되고 생선이나 육류 같은 비린내 나는 것과 날 것을 먹지 않으며, 매일 냉수로 목욕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하며, 문밖 출입을 금하고 외부인과의 접촉도 금하다가 거리제에 임한다. 註 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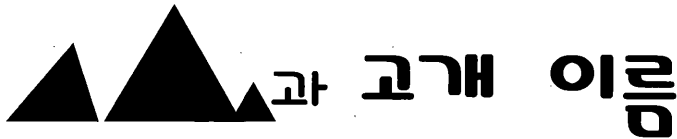
거리제일이 되면 아침 일찍 장에 나가 제물을 준비



한다. 제물로는 소머리·백설기·제주·삼색 실과·포·채·탕을 준비하는데, 제수비용은 마을의 기금을 이용하거나 기금이 없으면 집집마다 거두어 마련한다.

제례의식은 유교식의 집례법으로 강신 - 분향 - 초헌 - 고축 - 아헌 - 종헌 - 첩작 - 일동재배 - 소지의 순으로 거행된다. 소지는 집마다 1매씩 올리게 되며, 제가 끝나고 나면 주민들은 한데 모여 음복한다.

## 하늘의 지명유래



### ● 객산(客山, 301m) : 교산동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뒤편의 산으로서 옛날에 마귀할멈이 한양에 남산을 만들려고 이천의 도드람산을 떼서 치마에 싸 가지고 가다가 힘이 들어 이 곳에 놓고 갔다고 하는데 타지에서 들어온 산이라고 하여 객산이라고 하였으며 이 산에는 객산폭포가 있고 폭포옆 바위에는 불상이 새겨져 있는데 이 불상이 보물 981호로 지정되어 있는 태평2년명마애약사불 좌상이다.

한편으로는 이 산자락 밑에는 이 고을을 지나는 길손이나 관아에 불일이 있어 왔던 사람들이 묵어갔던 객사(客舍)가 있었기 때문에 객산(客山)이라고 부른다고도 한다.

실제로 이 산자락에는 거대한 규모의 건물터가 있어 조사를 진행중인데 실제로 객사로 쓰여진 건물이 있었

는지는 좀더 연구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 검단산(黔丹山, 657m) : 하산곡동

남한산이 북으로 향하여 한강과 연접해 있는 산으로서 산의 정상에 오르면 북한강과 남한강의 합류점이 보이고 서쪽 멀리는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운 산이다.

검단산은 창우동·하산곡동·배알미동에 걸쳐 있으며 그 면적이 987ha에 이르며 팔당나루에서 광주의 퇴촌까지 이어지는 명산이다.

검단산은 자연경관이 수려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



로부터  
신령스런  
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산의 정  
상부에는  
동명성왕  
을 제사  
지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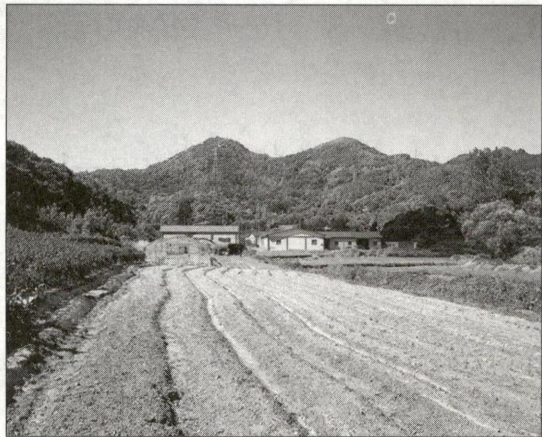
것으로 추정되는 제단터가 발견되기도 하였고 오늘날에는 산악인들이 매년 산신제를 지내는 영산이다.

신령스런 산임을 증명하듯 검단산에는 여러 가지 설화가 전해져 오는데 남한산에 있던 백제시대의 승려 검단선사가 가까이 지내던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도가 부족함을 깨닫고 이곳에 와서 은거하며 불도를 닦던 곳이라고 하여 검단산이라고 칭했다고 한다.

또 해방 무렵에는 잃어버린 아이가 일주일만에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 ● 금암산(金岩山, 332m) :

남한산의 일장산 줄기에서 뺏어내려 이성산과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단색을 띤 바위가 많아서 금암산 혹은 금바위라고 부른다. 또한 산 아래에서 보면 바위가 열기설기 있는 것처럼 보여 “열거산”이라고도 부르며, 토속신앙인들이 많이 다녀가는 산이다.



금암산에는 마애불(삼국시대~고려시

대)이 심하게 파손된 채 있으며 신복선사 터·약정사

터·자화사 터 등 옛 절터가 여러 곳에 있으며 춘궁리 3·5층 석탑이 있는 동사(桐寺) 터가 있다.

## ● 봉암산 (峰岩山) : 상사창동

산 봉우리가 매우 높고 바위들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며 산세가 수려하고 계곡을 흐르는 물은 매우 맑고 덕풍천의 상류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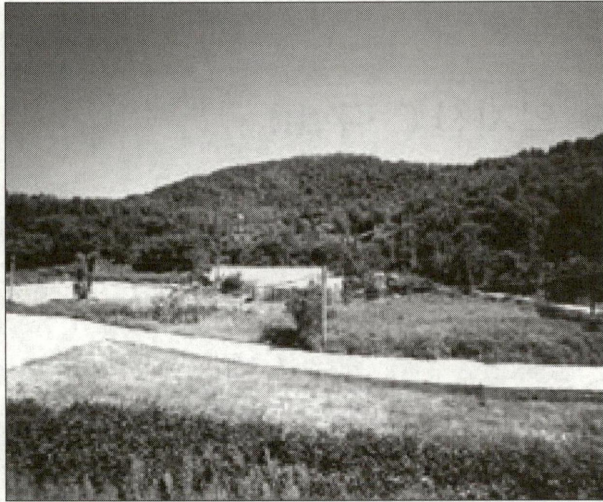
## ● 벌봉 (蜂峰) : 상산곡동

인조14년 병자호란이 일어나 청군이 공격해 오자 아군이 이 곳의 산 봉우리로 피신하였는데 갑자기 수없이 많은 벌이 날아와 청군을 쏘아 아군의 승리를 도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이성산 (二聖山, 209m)

백제의 시조 온조대왕의 성지가 있다고 전해져 온 산으로써 춘궁동과 초일동에 걸쳐 있다. 전설에 의하면 백제의 왕자 두 사람이 이 산에 거주하였다고 하여 이성산이라 칭했다고 하나 신빙성은 없다. 다만 현재 산성터를 발굴하는 중이며 삼국시대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고 오래 전부터 백제 도읍지와 관련하여 학계의 주목

을 받아  
왔 으 며  
하남위례  
성 (河南  
慰禮城)  
으로 보  
는 이 들  
이 있다.



## ● 철마산 (鐵馬山, 250m) : 감이동

일명 말산 혹은 천마산(天馬山)이라고도 하며, 남한산의 서편 줄기에 걸쳐서 수려하게 형성되어 있는 산으로써 하남시 감이동과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이 경계하고 있는 지역을 이루고 있다. 산의 형세가 위에서 보면 말의 형상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일설에는 조선시대 병자호란 당시 말산에서 용마가 나와 임경업 장군이 개룡리에서 갑옷을 입고 투구봉에서 투구를 쓴 후 용마를 타고 싸움에 출전 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산에 철분이 함유된 돌이 많으며 특히 검은색을 띤 돌이 무거워 일제시대에는 일본인들이 철광산을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경제성이 없어 개발하지 못하였다고 한



다.

## ● 일자산 (一字山)

산의 모양이 일(一)자 같이 생겼다 하여 일자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일자산은 하남시 감북동의 배다리에서 초이동에 이르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산이다. 남쪽으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서하남IC, 서쪽으로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와 둔촌아파트, 그리고 천호동, 길동에 닿았으며 보훈병원을 아래로 거느리고 북쪽으로는 고덕동, 상일동 그리고 천호동에서 하남시 방면으로 이어지는 국도에 접하고 있으면서 남북으로 약 5km에 걸쳐 펼쳐진 산이다. 둔촌 이집 선생의 훈교비(訓敎碑)가 있다.

## ● 증산 (甌山)

감일동 시림(詩林) 뒷산으로서 시루를 얹어놓은 것처럼 생겼다 하여 시루증(甌), 피산(山)을 써서 증산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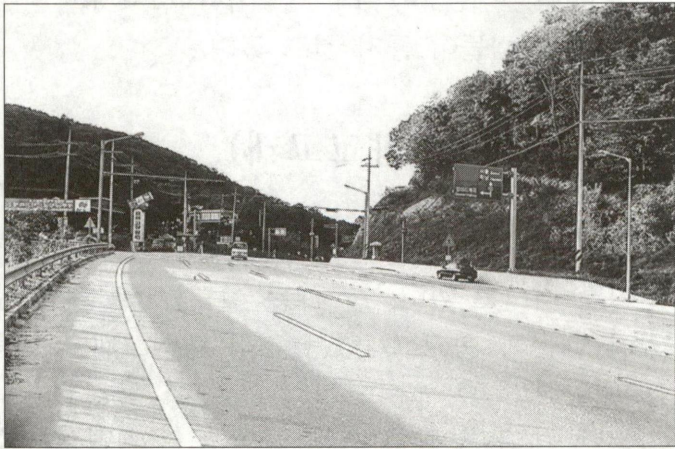
## ● 은고개

하남시 산곡동에서 광주시 광지원리로 넘어가는 43번 국도의 경계를 이루는 고개이다. 은고개는 아직까지 이

렇다할 확실한 지명유래가 밝혀지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은고개에는 여러 가지 지명유래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홍경모의 『중정 남한지(重訂南漢誌)』에는 엄현(嚴峴)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지명유래에 관하여 정설이 아직 없으므로 여러 가지 설을 함께 밝혀 두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한양의 엄정승이 묘자리를 구하려 다니



가 고개가 하도 험하여 마루턱에서 쉬면서 올라온 고개를 내려다 보니, 고개의 모양이 뱀의 꼬리와 같다 하여 자기의 성에 꼬리 미(尾)를 붙여 엄미(奄尾)고개라고 불렀는데 그 후 말이 변하여 은고개로 되었다는 설이다.

다음으로 조선시대의 문인으로서 지는 예장, 호는 석주이며 송강 정철의 제자인 권필(權鞞, 1569-1612)이라는 사람이 광해군 때 귀양을 가다가 지금의 은고개에 당도하여 산수가 빼어나고 한강을 굽어보는 산세와 우

거진 숲, 새들의 노래, 고요한 그늘아래 앉아서 그 시대를 한탄하며 그가 사모하는 은대감을 생각하며 시를 남겼다고 하여 은고개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고개가 은근하게 경사를 이루며 제법 길게 올라가므로 올라가려면 숨이 끊어질 듯하여 엄엄(奄奄)한 고개라 불렀다는 것이다.

은고개 옆에는 약수터가 있어서 사시사철 마르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있다.

## ● 향여고개 (향교고개)

춘궁동과 광암동을 잇는 고개로서 금암산과 이성산의 사이를 지나고 있다. 유래는 이 근처에 광주향교가 있었기 때문에 향교고개였던 것이 향여고개로 발음이 변한 것이다.

또한 이 부근에 성황당이 있었고 오가던 길손들이 발길을 멈추던 곳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도로의 개설로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 ● 범재고개

지금의 덕풍3동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사이의 언덕으로 후미진 고개를 범재고개라 불렀다. 예전엔 이곳에 해가 지면 호랑이가 나온다 하여 인적이 드물었고 그래서 이곳을 범재고개라 불렀다는 것이다.

## ● 사리고개

옛날 둔지에서 풍산동 군량골을 거쳐 고골로 들어오는 세미길에 이성산 줄기의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의 바위에 부처가 새겨져 있고 샘이 나서 쉬어가던 곳으로 지금은 중부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다.

● 그 밖에 새우개 고개(오금동에서 둔촌동 약수터로 넘어가는 고개), 언덕재 고개(감북동 뒤 일자산 가무나리에서 서울 둔촌동 약수터로 넘어가는 고갯길) 등이 있다.



문화유적답사기

# 전남 나주의 문화유적 기행

창랑 배 순 덕

(화가, 하남문화원 서양화 강사)

羅  
州  
금  
성  
관

신록의 빛깔은 꽃보다 아름답다.

노랑에 가까운 연두에서부터 옥색, 풀색, 녹색, 초록 그리고 상록수의 질푸른 청록 색깔까지, 시차를 달리하며 피어나기 시작하는 봄의 잎사귀들은 연두를 품은 안개 처럼 온 천지를 뒤덮는다.

붓을 놓고 잠시 맞은편 산을 건너다 보면 오월의 산이 저렇게 다양한 빛깔의 초록을 간직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된다.

폭설과 강추위로 세상이 온통 무채색으로 물들어 도무지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던 지난 겨울의 그 기세등등한 흑한 속에서도 땅은, 사람이 희망을 간직하듯이 그렇게 여러 가지의 빛깔들을 가슴 안

에 꼭꼭 품고 있었던 것 같다.

나주를 향하여 출발하던 날은 아카시아가 수줍은 몸짓으로 꽃망울을 터뜨리며 그윽한 향기를 내 뿜기 시작하던 오월 초순이었다. 이번 여행은 하남문화원의 문화대학 회원들과 동행하다보니 나주지역의 유적답사를 겸한 여행이 되었다.

**나주**의 역사는 영산강과 함께 한다. 영산강이 만들어낸 기름진 평야는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살만한 요지가 되어왔다.

따라서 구석기시대부터 강 유역에 터전을 잡고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를 거치면서 자연스레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 흔적으로 수천 기의 고인돌을 남겼다. 그래서 나주 평야에 흥년이 들면 전국이 굶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나주는 넓은 평야를 차지하고 있다.

6세기 초까지는 영산강유역의 강력한 왕권국가였다고 추정되는 나주가 중앙정치무대에 등장한 것은 고려의 개국과 더불어였다고 한다.

당시 나주는 장보고의 세력권 아래에 있던 해상세력의 주요한 거점이었다. 나주호족들이 태봉의 왕건과 손을 잡음으로써 당시 주요한 무역로인 산동반도로 통하는 해상로를 확보할 수 있었고 반면에 왕건은, 나주를 그 세력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는 나주에서 장화왕후 오씨와 인연을 맺어 고려의 2대왕 혜종을 낳



았다.

이러한 인연으로 나주는 전국 12목의 하나로 지정되어 구한말까지 전남의 중심지가 되었고, 나주관찰부까지 설치되었으나 '단발령 사건' 이후인 1896년에 폐지되고 광주지역에 전남도청이 들어서면서 행정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었다.

나주는 1981년에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합쳐 금성시로 승격되었으나 그후 금성시라는 이름을 나주시로 변경하였고, 1995년에 다시 나주시와 나주군을 통합하여 지금의 '나주시'가 되었다고 한다.

## 아침 여섯시쯤 집을 나섰다.

하남에서 일행들을 만나 일곱시에 출발하기로 하였으나, 출발장소인 남한고등학교 앞 다농마트를 알지 못한 회원으로 인해 출발이 다소 지체되었고, 출발을 한 후에도 택시를 타고 뒤쫓는다고 연락이 온 또 다른 회원을 기다리느라 얼마간을 더 지체하였다.

버스로 네시간 가까이를 달려서 나주에 당도했다. 충청도 지방을 지나면서부터는 산의 굴곡이 점차 부드러워지고 검붉은 황토 빛 선연한 산자락의 논밭이 신록의 색깔과 묘한 대비를 이룬다.

차가 달릴수록 산은 점점 멀어지고 평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넓은 들녘은 이미 푸르게 물든 곳도 있으나, 대부분이 모내기를 하기 위해 갈아놓은 논이다.

그 드넓은 평야 흠빛들녘 한 자락을 붉게 물들인 자운영 풀꽃이 내 시선을 끌어당겼다. 나도 모르게 닫혀진 창문을 통해 풀꽃의 향기를 가슴깊이 들이 마셔본다.

잊고 지냈던 아름다운 기억 한 자락이 선연히 떠오른다.

아아, 자운영

논길을 따라 오가던 학교길에 자운영 풀꽃이 지천으로 피어 있었다.

일곱, 여덟살 때쯤이었으니까 벌써 사십 년 가까운 기억 저편의 일이다. 이른 봄 자운영 씨를 뿌려 놓으면 논 가득히 푸른 잎이 돋고, 그 잎새 사이로 지천으로 흐드러지며 안개 같은 붉은 자운영 꽃이 피었다.

아마 오월 이 때쯤이었던 것 같다. 논 주인들은 그 자운영 꽃이 가득히 피어있는 논을 미련 없이 갈아엎고 물대기를 했다.

어린 마음에 많이 서운했다. 왜 저리 고운 꽃을 기껏 심어놓고 갈아엎을까? 지금 생각하니 화학비료가 귀하던 시절의 농부들의 지혜였다.

**나주**시 과원동에 있는 나주 금성관(錦城館)은 조선 성종 7년 목사 이유인의 발안으로 나주목의 정청으로서 건립되었다고 한다.

시내 한 복판에서 차를 멈추고 나주시의회 건물을 통과하여 의회 뒷마당으로 갔다.



나주향교 대성전

뒷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의회건물 앞에서는 흔적도 보이지 않던 웅장한 건물이 시야에 확 들어왔다. 나주 문화원 사무국 직원의 안내와 설명을 듣고 건물을 둘러 본 후에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밖으로 나왔다. 초여름의 신록에 휩싸인 금성관은 의회건물 뒤쪽에 있으면서도 위용이 당당했다. 그러나 현대식 의회건물 뒤에 바짝 붙어 감추어져있어 가시거리가 아주 좁았고 그 때문에 건물을 포함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 구도를 잡기가 애매하기 그지없다. 본래 없이 건물만 더욱 크게 부각돼 보일 뿐이었다.

원래 금성관이란 현, 목, 부에 있던 객사건물로서 세 가지의 기능과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 첫째가 권패를 모시고 한달에 두 번, 초하루 보름마다 임금을 향하여 예를 올리는 기능이고, 둘째 지방에 있어서의 중앙

권력을 상징하며, 셋째 객사 그 자체의 용도로서 의미가 그것이라고 한다.

스케치를 마치고 나주의회 사무국에 들어서 금성산 지도를 하나 구해 나오느라 일행을 놓치고 말았다.

일행을 찾아 숨가쁘게 뛰어가다 다시 뒤돌아보니 의회건물에 가려 금성관은 역시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뛰면서 생각하니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다. 나주지방 문화재 2호라는 저 고색창연하고 당당하기 그지없는 금성관 앞을 가로막고 더 크고 당당한 의회건물을 지어야겠다고 맨 처음 생각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 영산강과 반남고분군

오월의 햇살 아래 바람이 분

다.

그 바람을 따라 보리밭이 파도처럼 흔들린다. 바람이 불 때 마다 푸른 유혹처럼 일어서는 싱싱한 보리밭. 어느 편 나즈막히 눕고 어느편 바람과 함께 일어선다

영모정(永慕亭) 위에서 들녘을 바라보면, 아스라한 별관 보리물결 사이를 휘돌아가며 영산강이 흐른다. 강은 보리밭 사이에 낮게 얹드려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칼날처럼 희게 번득이며 보리물결 위로 뛰어올라 용틀임을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강은 제 멋 대로 그냥 흐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주변에 모여드는 생명들을 보듬



고 생명들을 키우고 생명과 생명을 이어주며 흐른다.

언덕 위 나무 그늘에 앉아 하염없이 들녘을 바라본다. 빈 듯 고요하지만 뜨거운 불길로 내재된 생명을 키워내는 저 아스라한 벌판과 강물. 때론 흐르고 때론 멈추고 때론 갈라지거나 꺾여서, 긴 가뭄에 바닥을 허영게 드러내 보이는 때일지라도 최선의 노력과 성실을 다하여 언제나 다시 흐를 준비를 한다.

가뭄에 바닥이 갈라진다 하여 흐름을 망각하는 일도 없고, 작은 물줄기라 하여 무시하는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길이 막히면 아무런 불평 없이 돌아서 갈 줄도 안다. 고이면 썩고 멈추면 사라짐을 아는 강의 현명한 지혜다.

생각해 보면 우리네 삶도 한줄기 긴 강물의 역사와 다를 게 무언가?

일상 속의 일들이 비 온 뒤에 강물이 흐르듯이 잘 풀려 나갈 때도 있지만 어느 때, 흐르던 물이 벼랑을 만나듯이 급전직하로 낙하 할 때도 있고, 산이나 언덕에 막혀 목전에 길을 두고도 먼길을 돌아서 가야만 할 때도 있고, 웅덩이에 가두어져 막막함과 무기력에 얼굴을 감싸안고 주저 앓을 때도 있다.

배를 드러낸 강바닥처럼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도 더러는 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중국의 황하나 인도의 갠지스,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티그리스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 등.... 인류의 모든 문명과 역사가 강 유역에서 시작되고 강 유역에서 번성되었지만,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도전과 응

전 없이 발전만 되어 왔던 것은 분명 아니었다.

오늘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이 눈부신 문명 뒤에 감추어진 거대한 역경과 고난의 그림자들을 우리의 선조들인 인류가 강물처럼 슬기롭게 잘 극복해왔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네 개인사 역시 규모만 다를 뿐이지 그 흐름의 역사에 준하지 않을까?

**나주** 덕산에 있는 고분 위에 올라서서 바라보는 들녘은 영모정에서 바라볼 때와는 조금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강이 보이지 않아서일까?

이곳 반남면과 다시면 지역에는 모두 80여기에 달하는 거대한 고분군이 있다는데 모두 다른 곳에서 흙을 날라다 조성한 고분으로 그 거대함 때문에 나주에서는 조산(造山)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했다.

문화재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던 시절, 경지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산들이 파괴되고 이 일대에 지금은 80여기의 고분만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헌데, 일상적인 무덤의 크기만을 보아 온 내 눈에는 그 고분 하나 하나가 정말 조산이라는 이름 그대로 작은 산 만큼이나 커 보인다. 서울 경기 일원의 왕릉을 훑하듯 다녀 봤지만 이처럼 큰 왕릉은 없었다. 이전에 경주에서 보았던 능들을 제외하곤 처음 보는 규모이다.

무덤 주위에는 20~30cm정도 깊이의 해자가 무덤 둘레를 따라서 동그랗게 파여 있다. 말하자면 해자의 흔



나주 고분앞에선 문화가족들

적이다. 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城)이나 요새 둘레에 해자를 파고 물을 채워 놓은 것은 보았어도 이처럼 무덤 주위에 해자가 파여 있는 것은 처음 본다.

안내하는 분에게 물으니 그것도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는 애매한 대답이다. 언 듯 생각해 보니 적이 침입했다하여 성도 요새도 아닌 무덤을 점령하겠다고 덤벼들 리는 만무하다. 그렇다면, 그 때도 요즘처럼 도굴꾼들이 많이 들끓어서 그랬던 건 아닐까? 아니면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하여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파헤치듯이, 고대국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정치상의 음모가 도

사렸던 건 아닐까? 아니면 종교적인?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래도 내 상식적인 선에서는 납득이나 해결은 되지 않고 오히려 궁금증만 더해갔다.

그 해자를 경중경중 건너 언덕을 오르듯이 잠시 숨을 몰아쉬며 위로 올라서 보았다. 고분 위는 바람이 드세었다. 너른 들판을 지나 거침없이 달려오던 그 드센 바람이 내 모자를 붙들어 순식간에 저만치 무덤 아래로 날려보낸다.

모자를 주워 들고 나무끼는 옷깃을 여미며 다시 고분 위로 올라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넓다란 들녘이 한 눈에 보인다. 그 들판의 단조로움을 깨트리려는 듯이 몇 그루씩 그룹을 지어 서 있는 소나무가 듽성듬성 눈에 띈다.

그런데 5~6세기 무렵에 축조되었다는 이 무덤에는 누가 묻혀 있는 걸까?

그것 역시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일제 강점기 이래로 많은 발굴과정을 거쳐, 영산강 유역의 중심인 이곳 나주지역에 6세기 중반까지 백제와는 다른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발굴 성과로 나타나긴 했으나, 무덤 속에 문자(文字)유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덤에 묻힌 이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더 특이한 것은 그 고분들이 어느 한 사람만의 무덤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부가 하나의 봉토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그 하나의 묘안에 다수의 사람이 묻혀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한 시대의 사람이 여럿 묻혀 있는 것이 아니



라 한 시대의 사람이 묻힌 위에 그 다음 시대의 사람을 묻고 또 그 위에 그 다음 시대의 사람을 묻는, 말하자면 여러 시대에 걸쳐 조성된, 아파트 형태의 고분이라는 것이 더욱 궁금증을 자아냈다.

## 하남의 근현대사 자료

# 하남 예일교회 (구 미사촌 교회)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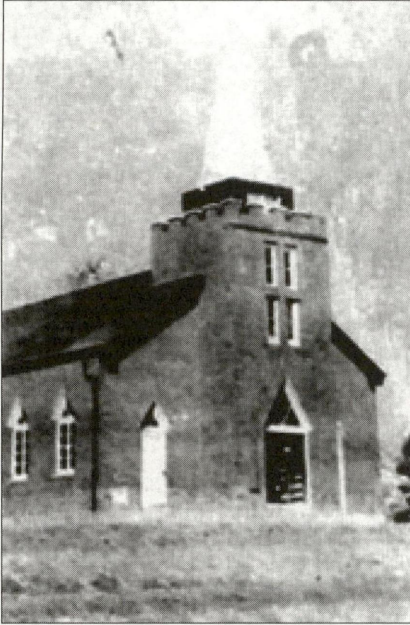
김 윤 규 목사

### 가. 초창기 교회 설립 당시의 상황과 활동내용

본 교회가 설립될 당시인 1927년 전까지 하남시 일대에는 전혀 기독교가 전해지지 않아 무교회 상태였다. 그런데 당시 새문안 교회(서울 광화문에 소재)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던 안동민 영수(현재 본 교회 안소녀 권사 부친)께서 망월포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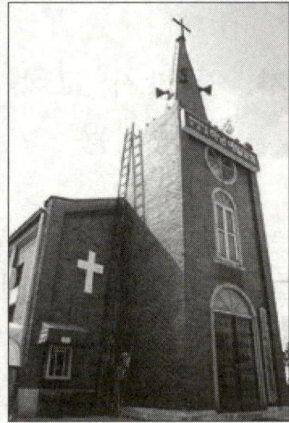
이사 후에 안동민 영수가 전도하기 위하여 미사리 지역을 둘러보았는데 그 때 함께 다니던 한 백발 노인과 함께 1927년 5월 11일 병중에 있던 박밀양씨(최광섭 장로 모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며 이것이 미사촌 교회의 시작이었다.

그 당시에는 미사리 뿐 아니라 이 일대에 정신 질환



▲미사촌교회

을 앓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고통을 받던 때였다.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병 고침 받는다는 이야기가 퍼졌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중에 박밀양씨가 병고침을 받았다. 그러자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예일교회▶

모여오게 되었고 오는 사람은 많은데 방이 비좁아 예배드리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2년 후인 1929년 5월에 18평 정도의 목조 교회를 지어 예배당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교회에 모여 오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

이 많았는데 예배를 통하여 고침 받는 병도 있지만 병세가 심하여 고쳐지지 못하는 병자도 있었다.

다행한 일은 한국말을 잘하는 위철제라는 미국 선교사가 와서 말씀도 전해주고 병세가 심한 환자들은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연결시켜 치료받게 해주었다. 이렇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의료활동에 의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나음을 입고 기독교에 귀의하여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

특히 당시 위철제 선교사가 이곳에 와서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열심히 선교활동을 펼쳤으며 1949년 3월에 이곳에 부임한 이동섭 목사는 1950년에 남침해 온 공산당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앙과 민족애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절개를 보이다가 후유증으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평생을 불편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1957년 미사리 207번지(현 미사리 교회)에 건평 45평의 미사촌 교회당을 적벽돌로 건축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병고침을 받고 교인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그들중에는 먼 지역에서부터 걸어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멀리서 미사촌교회 까지 오는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교회를 세우는 작업을 하거나 돕게 되었다.

그 후 다른 지역 두 세 군데에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어서 초창기에 미사촌교회는 여러 교회를 직간접으로 돕고 협력하며 모교회 역할을 감당하였다. 세워진 교회에 설교자를 파송하고 성경학교를 인도하며 이 지역일대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선교사역과 교육사역



을 감당하였다.

그러던 중 1972년도에 미사리가 수해로 잠기면서 정부로부터 이전 명령을 받고 현재의 망월동 42-5번지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곧바로 교회 건축에 착수하여 미사리에 있는 교회와 똑같은 규모의 교회를 신축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4년 교회가 위치한 곳이 미사촌이 아니므로 교회명칭을 변경하자는 결정과 함께 교인들에게 교회 명칭을 공모한 결과 “하남 예일교회”(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교회)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담임 교역자는 1983년에 부임한 김윤규 목사가 현재까지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명의 목회자와 장로들이 배출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최광섭 장로의 아들 최인규씨는 외자청장과 내무부장관을 지냈고, 본 교회를 50년대에 담임하였던 백동섭 목사는 한 장로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였다.

## 나. 교회의 연혁

1927. 5. 11

안동민 영수(현 안소녀 권사 부친)의 인도로 미사촌(미사동) 박밀양씨(최광섭 장로 모친) 가정에서 최초로 예배를 드림.

1929. 5

최초로 교회당 건축(목조 9칸, 18평)

1930. 5. 10

김흥식 목사 집례로 박밀양, 최광섭, 이은순 3인 수세

1931. 5

최광섭씨 집사 피택

1938. 4

기독교청년면려회 조직(회장 최광섭 집사)

1947. 8

최광섭 장로 장립

1949. 3

이동섭 목사 부임

1952. 6. 29

김인식 집사 장로 장립

1953. 1

최조식 집사 장로 장립

1956. 11. 27

임영권 집사 장로 장립

1957. 5

교회당 신축(미사리 207번지) (벽돌 건평 45평)

1957. 5

이은순 집사 권사 취임

1957. 9

백동섭 목사 부임

1959. 4. 9

백동섭 목사 위임식 거행

1961. 12

양대석 목사 부임

1964. 8

교회 대지 392평 매입 등기필

1964. 10

양대석 목사 위임식 거행

1969. 2

윤덕수 목사 부임

1971. 5. 20

윤태은 집사 장로 장립. 김인성, 최진규 집사 장립. 교육관 신축.

1972. 5. 11

교회 장립 45주년 기념식, 윤덕수 목사 위임식, 한만순  
집사 권사 취임.

1972. 11

수해로 인한 정부지시로 미사리 207번지에서 교회당을  
망월동 42-5번지 현위치로 옮겨 교회당 신축.

1975. 2

김해용 전도사 부임

1976. 10

김해용 강도사 목사 장립

1978. 9. 7

김인성 집사 장로 장립. 안소녀, 방옥순 집사 권사 취  
임

1979. 8. 30

성전봉헌. 김해용 목사 위임식. 최병균, 최창기 집사  
장립. 김동근 집사 취임

1982. 4. 27

최병균 집사 장로 장립. 정옥순 집사 권사 취임



1982. 4. 29

교인 수송용 12인승 봉고차 구입

1983. 9. 1

김윤규 목사 부임

1983. 11

망월동 46번지 소재 전답 238평을 매입 합병함.

1984. 5. 8

김윤규 목사 위임식. 최병학, 김수 집사 장립. 강데례  
집사 권사 취임

1987. 11. 19

김동근, 최창기 집사 장로 장립. 최병세, 최병요 집사  
장립

1991. 6. 6

정익성, 김무생 집사 장립. 지복순, 정옥윤, 김태선,  
심상유, 서성순 집사 권사 취임

1992. 10. 6

교인 수송용 25인승 콤비 구입

1994. 5. 15

교회명칭 변경을 공모하여 미사촌교회에서 하남예일교  
회로 변경

1995. 10. 5

교회 옆 전답 105평 매입

1996. 1. 1

임영권 장로 은퇴. 윤점순, 이간난, 허은절 집사 명예  
권사 임명

1998. 4. 4

김인성 장로 원로 장로로 은퇴. 김수, 김무생, 최병학  
집사 장로 장립

1998. 5. 24

신동헌 평신도 선교사 인도 파송

1998. 8. 16

하남예일교회 정관 개정

2001. 11. 17

최창권, 최규, 이광열 집사 장립. 전상순, 조인규, 김  
영숙, 박옥순, 이연희 권사 취임

---

▶편집자 註 ◀

본 미사촌 교회 자료는 김윤규 목사가 제공한 자료에서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어체의 문장을  
적절히 바꾸었음.



## 어린이 잔치

# 가 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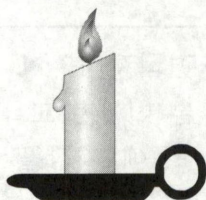
동부초등학교 3학년

김민규

가을이 되면 단풍이  
하나 둘 셋 떨어지고  
곧 겨울이 된다는 걸  
알리지요.

새들도 곧 남쪽으로 가지요.  
사람들은 겨울이 되기까지는  
김장을 하지요.

그리고 곧 눈싸움을 하면  
곧 우리의 세상이 되지요.



## 낙엽

동부초등학교 3학년 7반

이 경 민

바람다고 살랑 살랑  
낙엽이 떨어져요.

낙엽 하나 들 셋....  
낙엽이 떨어져요.

바람은 점점  
세게 불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나은 것은 세 개뿐....

가을이 얼마남지  
않았나 봐요.





## 단 품 잎

동부초등학교 3학년 4반

조희원

단풍잎은 예쁜 모양을 가진

예쁜 색을 가진 단풍잎

왜! 이렇게 특이한

모양 색깔일까?

참 부드럽다.

단풍잎은 정말 특이한

모양 색깔?

나는 단풍잎처럼

예쁜 마음을 가져야지!



## 스케이트장

천현초등학교 3학년 5반

윤도희

가족들과 함께 스케이트를 타러 간다.

엄마와 아빠는 타지 않고

오빠와 나만 타네.

오빠는 썩썩 나는 과당과당

아이 아파라.

내가 넘어지면 오빠는

나의 손을 잡아주네.

그런 오빠가 나는 고맙기만 하네.





## 붉게 물든 들판

천현초등학교 3학년 2반

황 유 빈

붉게 물든 들판

단풍나무가 들판에

웃을 입혔네

노랗게 노랗게 물든 들판

은행나무가 들판에게

웃을 입혔네

단풍나무와 은행나무 덕분에

들판이 알록 달록 웃을 얻었네



# 가 을

덕풍초등학교 5학년 5반

민 중 연

가을이 왔어요

저 넘어 시골 농사 금 밭

가을이 왔어요

저 높은 하늘이 높아요

가을이 왔어요

저 넘어 산 붉은 산

가을이 왔어요

이 날씨 정말 사늘해요





## 방 학

덕풍초등학교 3학년 7반

박 영 진

여름에는 방학이다.

신나게 놀기도 한다.

여름에는 많은 숙제들

정말 지겨워.

하지만 노는 건 좋다.

나는 컴퓨터 게임 좋아하니까.

나는 방학이 되면

정말 좋아.



## 은행잎, 단풍잎

덕풍초등학교 2학년 7반

이 유 리

은행잎과 단풍잎은  
색깔이 달라요.

노란색 빨간잎  
정말 예뻐요.

빨간색은 붉은 악마처럼  
손 흔들어 응원하고

노란색은 내마음에  
예쁜 꿈을 꾸게 하지요.





## 우리 나라

동부초등학교 3학년 3반

이혜민

우리나라 좋네

아이 좋네

우리나라 좋지만

쓰레기가 많네

다, 바다, 쓰레기가 많네

어쩔 줄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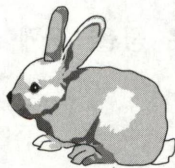
쓰레기가 없으면 좋겠네

엄마따라 나도

분리수거 해서

우리나라 더욱

깨끗하게 했음 좋겠어요.



## 딸 기

동부초등학교 3학년 1반

진 아 립

딸기는... 딸기는...

점순이야!

여드름을 내밀고 있으니까

딸기는... 딸기는...

너무 맛있어

들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몰라



## 할 머 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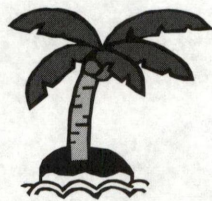
동부초등학교 5학년 7반

이 경 아

시골에 가면  
반갑게 맞아 주시는  
우리 할머니

할머니 이마에  
지렁이 같은  
할머니의 주름살

사람들의 주름살을  
펴 드린다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주름살을 제일 먼저  
펴 드리고 싶다.



# 문화행사 및 문화원 활동



## 2000년도 사업 및 활동실적



- ▷ 1/24(월) 제39차 전국문화원 연합회 정기총회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구자관 원장 참석)
- ▷ 1/24(월) 청와대 예방(구자관 원장)
- ▷ 2/10(목) 2000년 제1차 이사회의  
(총회 개최의 건, 2000년 사업계획)
- ▷ 2/16(수) 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이사회  
(구자관 원장 참석)
- ▷ 2/18(금) 무공수훈자회의  
(구자관 원장 참석)
- ▷ 2/22(화) 제5차 정기총회
- ▷ 2/24(목) 경기도지회 2000년 제9차 정기총회  
(구자관 원장 참석)
- ▷ 3/23(목) - 3/24(금)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 워크샵  
(용인한화리조트, 사무국장 참석)
- ▷ 4/7(금)-4/8(토) 문화원 임직원 연수  
(양지 파인리조트, 구자관 원장, 박인수 감사,  
윤종준 사무국장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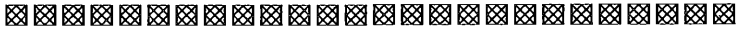
- ▷4/7(금) 경기도지회 2000년 제2차 이사회  
(구자관 원장 참석)
- ▷4/21(금) 경기도지회 제6회 향토유적답사  
(윤종준 사무국장 참석)
- ▷4/25(화) 2000년 제2차 이사회  
임시총회 개최의 건
- ▷5/9(화) 제6차 임시총회  
(구자관 원장선출, 5/29 사임)
- ▷5/12(금) 교산동 건물지 발굴지도위원회  
(김종규 이사, 사무국장 참석)
- ▷5/16 제3차 이사회
- ▷5/24(수)-5/26(금) 제10차 전국문화원 사무국장 연수  
(제주유스호스텔)
- ▷6/21 제4차 이사회
- ▷6/24(토) 경기도지회 사무국장 회의
- ▷7/5(수) 제5차 이사회
- ▷7/27(목) 제7차 임시총회  
(임원선출, 이용우 원장 선출, 10/24일 등기 필)
- ▷8/1(화) - 8/3(목) 대마도 학술조사  
(경기도지회 주최, 사무국장 참석)
- ▷8/29(화) - 하남회(이용우 원장 참석)
- ▷8/29 제6차 이사회
- ▷9/14(목) - 2000년도 전국문화원 연합회 임시총회  
(연합회 감사 선임 : 천광인 화성문화원장, 김정순 전  
보성문화원장)
- ▷10/5(목) 하남문화원 제3대 이용우 원장 취임식

- ▷ 10/12(목)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영업소 일일영업 소장  
(이용우 원장)
- ▷ 10/16(월) 고구려 축성법 세미나  
(구리문화원, 윤종준 사무국장 참석)
- ▷ 10/20(금) 제2의 건국운동실천 백일장(임진각)
- ▷ 10/25(수) -10/27(금)  
제2차 향토문화연구자 초청 연찬  
주최 및 장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윤종준 사무국장 참가)
- ▷ 11/8(수) 지역현장 선진생활문화강연회 : 문화원강당  
강사 : 김평일 가나안농군학교 교장  
주제 : “孝”
- ▷ 11/8(수) -11/10(금)  
제3차 향토문화연구자 초청 연찬  
주최 및 장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참가 : 이용우 원장, 박인수 감사
- ▷ 11/9(목) -11/10(금) 2000년 향토사 연수  
주최 : 경기문화재단  
주제 : 정보화 과정  
(양평 대명콘도, 윤종준 사무국장 참가)
- ▷ 11/9(목) 경기도 사무국장회의  
(양평대명콘도, 사무국장 참석)
- ▷ 11/12(일) 제4회 하남어린이 바둑대회 (120명 참가)
- ▷ 11/17(금) 제4회 하남사랑 창작대회 (500명 참가)
- ▷ 11/18(토) - 11/19(일) 상사창동 연자방아 이영유키
- ▷ 11/23(목) 빛그림회 사진전시회 개막



- 장소 : 하남시청 전시실  
(이용우 원장, 윤종준 사무국장 참석)
- ▷ 11/24(금) 전국순회 선진생활문화 강연회  
(동두천 문화회관, 45명 참관)
- ▷ 11/28(화) 문화유적지 답사
- ▷ 11/30-12/2(토) 전국문화기반시설관리책임자대회  
주최 : 문화관광부  
장소 : 제주문화회관  
참가 : 이용우 원장
- ▷ 11/29(수) 하남회 정례회의(이용우 원장 참석)
- ▷ 12/5(화) 교산동 건물지 발굴지도위원회  
(김종규 이사, 윤종준 사무국장 참석)
- ▷ 12/6(수) 팔만대장경 시디롬 봉정식  
(윤종준 사무국장 참석, 올림픽 펜싱경기장)
- ▷ 12/7(목) 제15회 전국향토사 연구발표회 및 송년회  
주최 : 전국문화원 연합회  
장소 : 세종문화회관  
참석 : 이용우 원장
- ▷ 12/13(수) 제2의 건국운동 실천백일장 및  
제4회 하남사랑창작대회 시상식
- ▷ 12/14(목) -12/18(월) 제3회 향토작가 작품전시회  
장소 : 하남시청 전시실
- ▷ 12/21(목) 해공 신익희선생 동상 제막식  
(남한산성, 이용우 원장 참석)
- ▷ 12/23(토) 경기도 사무국장 회의
- ▷ 12/26(화) 제6차 이사회

# 문화행사 및 문화원 활동



## 2001년도 사업 및 활동실적보고



### ◎ 회의 및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행사

#### ▷강사회의

- 일시 : 1월 12일 (금) 11:00
- 장소 : 문화원 사무국
- 문화강좌 연중상설 계획 발표
- 문화교실을 문화대학으로 명칭 변경

#### ▷전국문화원연합회 정기총회

- 일시 : 1월 31일 (수)
- 장소 : 세종문화회관
- 참석 : 이 용 우 원장

#### ▷2001년도 제1차 이사회의

- 일시 : 2월 6일 (화) 11:00
- 장소 : 문화원 사무국
- 총원 (26)명 중 참석 (15), 위임 (4)
- 안건 : 1) 2000년도 수입 지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1년도 수입 지출 예산 승인의 건  
3) 총회 개최의 건



▷제8차 정기총회

-일시 : 2월 21일(수) 11:00

-장소 : 문화원 교육관

-총원 (75명), 위임 (9), 참석 (35)

-안건 : 1) 2000년도 수입 지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1년도 수입 지출 예산 승인의 건

▷문화원 경기도지회 정기총회

-일시 : 2월 26일(월) 11:00

-장소 : 문화원 경기도지회

-참석 : 이 용우 원장

▷경기문화재단 사무총장 면담

-일시 : 2월 26일 12:30

-이용우 원장

▷문화원장 초청 간담회

-일시 : 3월 16일(금) 11:00

-주최 : 새천년민주당

-원장 참석

▷문화재보호위원회

-일시 : 3월 23일(금)

-장소 : 시청 부시장실

-참석 : 이용우 원장

-내용 : 문화유적 지정을 위한 심의에서 사충서원 묘  
정비, 구산성지를 각각 향토유적 제3호 및  
제4호로 지정

▷경기도지회 사무국장 회의

- 일시 : 4월 14일(토)
- 장소 : 시흥시 - 사무국장 참석
- ▷2001년도 제2차 이사회의
  - 일시 : 4월 16일(월) 11:00
  - 총원(26), 참석(14), 위임(2)
  - 장소 : 문화원 사무국
  - 내용 : 2/4분기 사업계획보고
- ▷제2의 건국위원회 : 6월 8일(금)
  - 장소 : 시청상황실
  - 이용우 원장 참석
- ▷2001년도 제3차 이사회의
  - 일시 : 7월 27(금) 11:00
  - 총원(28) 참석(14), 위임(8)
  - 내용 : 3/4분기 사업보고
- ▷경기도 효문화 학술회의
  - 일시 : 7월 30일(월) 14:00
  - 장소 : 경기문화재단
  - 윤종준 사무국장 참석
- ▷일본 역사교과서 바로잡기 협의회
  - 일시 : 8월 29일(수) 14:00 - 16:30
  - 장소 : 경기도지회
  - 윤종준 사무국장 참석
- ▷문화대학 강사 회의
  - 일시 : 10월 16일(화)
  - 장소 : 문화원 사무국



- ▷경기도 문화원 사무국장 회의
  - 일시 : 11월 8일(목)
  - 장소 : 도지회 사무국
  - 윤종준 사무국장 참석
- ▷지방문화원 활성화 방안 컨설팅
  - 일시 : 11월 15일(목) 14시-17시
  - 장소 : 도지회 회의실
  - 사무국장 참석
- ▷예산지원에 관한 공청회
  - 일시 : 11월 28일(수)
  - 장소 : 경기문화재단
  - 윤종준 사무국장 참석
- ▷전국 향토사료발표회
  - 일시 : 12월 14일(금)
  - 장소 : 세종문화회관
  - 이용우 원장 참석
- ▷임직원 간담회 및 송년회
  - 일시 : 12월 19일(월)
  - 장소 : 문화원 사무국 및 포천
  - 참가 : 문화원 이사, 문화대학 강사, 직원

◎ 연수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특강

-일시 : 1월 29일(월) 11:00

-시청상황실

-이용우 원장 참석

▷경기 향토사연수

-일시 : 11월 22일(목) -23(금)

-장소 : 경기문화재단

-윤종준 사무국장 참석

▷전국 문화기반시설 관리책임자 대회

-기간 : 11월 29일(목) -30(금)

-장소 :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참가 : 이용우 원장, 서평준 하남시청문화관광과과장,  
윤종준 사무국장 참가

▷문예진흥을 위한 워크숍

-기간 : 3월 30일(금) -31(토)

-주최 : 경기문화재단

-장소 : 화성라비돌리조트

-이용우 원장, 박인수 감사, 윤종준 사무국장 참석

▷경기도내 문화원 임직원 연수

-기간 : 4월 20일(금) -21일

-장소 : 여주 남한강 일성콘도

-참가 : 이용우 원장, 박인수 감사, 윤희섭 이사,  
이초자 이사, 윤종준 사무국장



▷경기도지회 주최 문화유적 답사(김포시)

-일시 : 5월 11일(금)

-이용우 원장, 박인수 감사, 윤종준 사무국장 참석

▷전국 문화원장 연수

-기간 : 5월 23일(수) - 24일

-장소 : 올림픽파크텔

-이용우 원장 참석

▷경기도지회 주최 안동, 영주지역 실학유적답사

-기간 : 6월 8일 - 9일

-참가 : 김종규 이사, 윤종준 사무국장 참가

▷전국문화원연합회 사무국장 연수

-기간 : 6월 13일(수) - 15일

-장소 : 경남창녕

-윤종준 사무국장 참가

◎ 문화행사 주최 및 주관

▷하남문화대학 개강식

-일시 : 3월 5일(월)

-입학인원 : 295명

-개설 과목 : 13개 강좌

한글서예(강사 : 소담 박종희 선생),

한문서예(강사 : 소농 이성숙 선생),

사군자(강사 : 백담 이점도 선생),

가야금(강사 : 구광철 선생),

- 민요(강사 : 박윤정 선생),
- 가요(강사 : 황나영 선생),
- 종이공예(강사 : 유경아 선생),
- 어린이글짓기 초급 및 중급반(강사 : 김미숙 선생),
- 서양화(유화), (강사 : 송옥진 선생),
- 서양화(소묘), (강사 : 창랑 배순덕 산생)
- 스포츠맛사지 (강사 : 정석준 선생)
- 어린이 바둑(강사 박상택 선생),
- 차밍디스코 & 라틴댄스 (강사 : 이미옥 선생)

▷춘계 문화유적 답사

- 일시 : 5월 9일(수)
- 지역 : 전남 나주 지역의 문화유적

▷제5회 바둑대회

- 일시 : 6월 17일(일) 오전 9:30 - 오후 4:00
- 장소 : 문화원 교육관





▷문화대학 도자기실습

-일시 : 7월 16일 (월)

-장소 : 여주 도자기 공장

-참가 : 서예 (한글, 한문, 사군자) 수강생

▷명륜서당(한문 및 예절교육)

-기간 : 7월 23일 (월) 개강, 8월 21일 수료

-장소 : 광주향교

-강사 : 한문 (교육위원 유일준 선생)

예절 (광주향교 전교

구자관 선생)



▷어린이 글짓기반 현장학습

-일시 : 8월 22일 (수) 오전 10시-오후 4시 30분

-장소 : 정수장, 동사지 3층, 5층석탑, 이성산성,  
광주향교 견학

-인솔 : 김미숙 선생, 윤종준 사무국장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기간 : 9월 22일 (토) -23일 (일)

-장소 : 광명시 운동장

-참가 : 지경다지기 200명 참가(고골 주민)

-지도 : 김종규 이사

▷추계 문화유적답사

- 일시 : 9월 27일(목) 오전 9시 - 오후 5시
- 장소 : 이천, 광주 도자기 엑스포 행사장
- 하남시민의 날 행사 참관

▷시민음악회 <가을 속에서 산책과 음악을>

- 일시 : 10월 19일(금) 17:00
- 장소 : 시청광장 및 미사리

▷제5회 하남사랑 창작대회

- 일시 : 10월 20일(토) 13:30-17:00
- 장소 : 시청광장
- 부문 : 글짓기, 그림, 서예
- 참가 : 하남시 관내 학생 및 일반인 450명

▷제2의 건국실천 백일장

- 일시 : 10월 26일(금)
- 장소 : 부천 중앙공원(43명 참가)

▷하남의 금석문 현황 지표조사

- 기간 : 11월 12일부터 (13일간)
- 성과 : 한석봉 선생의 필적 발굴 등

▷제4회 향토작가 작품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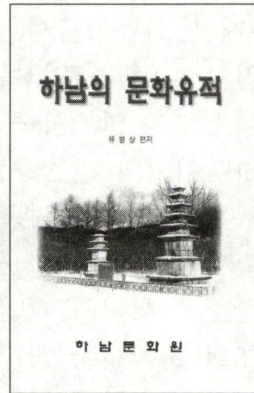
- 기간 : 12월 7일(금) - 14일(금)
- 장소 : 시청 전시실

▷2001 국악한마당

- 기간 : 12월 10일(월) - 12월 14일(금)
- 장소 : 은행apt, 부영apt, 신안apt 경로당, 춘궁동 노인회관, 신장동 성당, 영락경로원



- ▷하남의 문화유적 발간  
(12월 31일)  
편저자 : 유병상  
(양평중학교 교사)



- ▷하남시 사료집 4 (인물편-민영휘) 발간(12월 31일)  
편저자 : 문학박사 김세민/  
문학박사 신동규
- ▷위례문화 제5집 발간(12월 31일)

## ◎ 2001년도 지역문화 행사

- ▷재향군인회 정기총회
  - 일시 : 1월 29일(월)
  - 장소 : 문화원 교육관
- ▷21세기 하남의 재발견-역사, 문화와 미래- 학술회의
  - 일시 : 2월 2일(금)
  - 장소 : 시청대회의실
  - 주최 : 하남역사문화연구회, 경기대 소성학술연구회
- ▷남한고등학교 졸업식
  - 일시 : 2월 10일(토) 10:00
  - 이용우 원장 참석 우수학생 표창

- ▷서부초등학교 졸업식
  - 일시 : 2월 16일(금) 10:00
  - 이용우 원장 참석 우수졸업생 표창
- ▷무공수훈자회 총회
  - 일시 : 2월 17일(토)
  - 이용우 원장 참석
- ▷동부초등학교 졸업식
  - 일시 : 2월 19일
  - 이용우 원장 참석 우수졸업생 표창
- ▷광주향교 장의총회
  - 일시 : 2월 21일(수) 11:00
  - 장소 : 문화원 교육관
- ▷하남시 재향군인회장 이취임식
  - 일시 : 2월 22일(목) 14:00
  - 장소 : 시청 대회의실
  - 이용우 회장 이임
- ▷광주향교 춘계석전대제
  - 일시 : 2월 23일(금) 11:00
  - 이용우 원장, 윤종준 사무국장 참석
- ▷광주문화원 정기총회
  - 일시 : 2월 27일(화) 10:30
  - 이용우 원장, 윤종준 사무국장 참석
- ▷국민대학교 입학식
  - 일시 : 3월 2일
  - 이용우 원장 참석, 축하
- ▷하남회 정례회의



- 일시 : 3월 8일(목) 17시
- 이용우 원장 참석
- ▷오수봉씨 출판기념회
- 일시 : 3월 17일(토) 14:30
- 이용우 원장 참석
- ▷KBS 진품명품 행사
- 일시 : 4월 11일(수) 14시
- 장소 : 시청 대회의실
- 김종규 이사, 윤종준 사무국장 참관
- ▷하남시 여성단체 바자회
- 일시 : 4월 12일(목)
- 이용우 원장 참석 인사말씀
- ▷천왕사지 발굴지도위원회
- 일시 : 4월 13일(금) 10:00
- 이용우 원장, 김종규 이사, 한상준 이사,  
윤종준 사무국장 참석
- ▷하남 문인협회 문학의 밤
- 일시 : 4월 13일(금) 18:00
- 장소 : 시청
- 이용우 원장 참석
- ▷하남시의회 개원 10주년 기념식
- 일시 : 4월 16일(월) 15:00
- 장소 : 시청 대회의실
- 이용우 원장, 박인수 감사 참석
- ▷하남예술마당 주최 거리예술제
- 일시 : 5월 5일(토)

- 장소 : 시청 미관광장
- 참석 : 이용우 원장, 윤종준 사무국장
- ▷미술협회 하남지부 제3회 전시회 개막
  - 일시 : 5월 10일(목) 14:00
  - 장소 : 시청 전시실
  - 이용우 원장 참석
- ▷남한고등학교 1일 명예교사 출강
  - 일시 : 5월 15일(화) 스승의날
  - 김교신 감사, 윤종준 사무국장 출강
- ▷미협, 세계아동미술전람회 개막식
  - 일시 : 5월 21일(월)
  - 장소 : 시청
  - 이용우 원장 참석
- ▷제3회 이성무용경연대회
  - 일시 : 5월 27일(일)
  - 장소 : 한국애니메이션고교 강당
  - 이용우 원장 참석 및 우수자 표창, 사무국장 참석
- ▷한국풍수지리학회 답사 안내
  - 일시 : 5월 31일(목)
  - 지역 : 유길준, 장기영, 유진오, 의안대군 묘소 및 신익희 선생 생가
  - 안내 : 윤종준 사무국장
- ▷이천 국제도자센터 준공식
  - 일시 : 6월 1일(금)
  - 이용우 원장 참석



▷ 『하남시사』 발간 기념회

-일시 : 6월 5일(화)

-장소 : 시청 구내식당

-이용우 원장, 정순희 부원장, 박인수 감사, 김종규 이사, 박원결 이사, 김진현 이사, 한상준 이사, 이점도 이사, 윤종준 사무국장, 문화원 회원 다수 참가

▷현충일 추념식 : 검단산 호국사 앞 충혼탑 : 6월 6일

- 원장 참석

▷6.25 제51주년 행사 : 6월 25일 - 원장 참석

▷하산곡동 양곡단오제

-일시 : 6월 25일(월) - 사무국장 참석

▷하남회 정례회의 참석

-일시 : 6월 27일(화)

-시청상황실

-이용우 원장 참석

▷하남 청년회의소 11주년 기념식

-일시 : 6월 26일(화) 15:00 - 원장 참석

▷건원릉친향기신제 참석

-일시 : 6월 27일(수) 11:30

-윤종준 사무국장 참석

▷하남회 :

-일시 : 7월 26일(목) - 원장 참석

▷창랑 배순덕 선생(서양화A반 강사) 개인전 개막

-일시 : 8월 1일(수), 사무국장 참석

▷한강발원지 태백산 검룡소 한강대제

- 일시 : 8월 5일(일)
- 주최 : 태백문화원
- 이용우 원장, 박인수 감사, 윤종준 사무국장 참석
- ▷이천 세계도자기 엑스포 개막식
- 일시 : 8월 9일(목) 10:00 - 원장 참석
- ▷광주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개막식 참석
- 일시 : 8월 10일(금) 17:00 - 원장 참석
- ▷하남 생활체육협의회 : 8월 10일(금) 19:00,  
문화원 교육관 - 사무국장 참석
- ▷춘궁동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 자치위원장 : 김종규 이사
- 일시 : 8월 30일(목)
- 이용우 원장 참석
- ▷감북동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참석
- 일시 : 8월 31일(금)
- 이용우 원장 참석
- ▷초이동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참석
- 일시 : 8월 31일(금)
- 이용우 원장 참석
- ▷미술협회 하남지부 제13회 하남미술대전
- 일시 : 9월 13일(목)
- 장소 : 시청
- 이용우 원장 참석 축하
- ▷새마을지도자 대회
- 일시 : 9월 19일
- 장소 : 미사리 조정경기장



- 이용우 원장참석
- ▷현충탑 제막식
  - 일시 : 9월 25일 14:00
  - 장소 : 창우동 호국사 아래
  - 이용우 원장 참석
- ▷생활체육회장 이·취임식
  - 일시 : 9월 25일 16:00
  - 장소 : 시청 대회의실
  - 이용우 원장 참석
- ▷하남시민의 날 행사
  - 일시 : 9월 27일(목)
  - 이용우 원장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 ▷하남시민의날 시민노래자랑
  - 일시 : 9월 27일(목)
  - 심사위원장, 이용우 원장
- ▷하남시 여성단체 체육대회
  - 일시 : 10월 10일(수)
  - 이용우 원장 참석
- ▷미사리 선사유적 시굴지도위원회
  - 일시 : 10월 10일(수)
  - 김종규 이사 참석
- ▷광주향교 추계 석전대제 봉행
  - 일시 : 10월 13일(토)
  - 참석 : 이용우 원장, 박인수 감사, 김진현 이사,  
윤종준 사무국장
- ▷제11회 옛길 걷기 대회

- 주관 : 광주향교 청년유도회
- 일시 : 10월 14일(일) -
- 참가 : 이용우 원장, 한상준 이사, 윤종준 사무국장
- ▷제1회 동명대제
  - 일시 : 10월 14일(일)
  - 장소 : 검단산 등산로 입구
  - 주최 : 백제문화연구회, 한국토속민속보존회
  - 참석 : 한상준 이사, 김종규 이사, 윤종준 사무국장
- ▷현절사 제향
  - 일시 : 10월 26일(금)
  - 이용우 원장 참석
- ▷감북동 체육센터 개소식 및 운동회
  - 일시 : 11월 3일(토), 이용우 원장 참석
- ▷경기도지사 도정설명회 : 11월 6일(화) - 원장 참석
- ▷장애인협회 바자회
  - 일시: 11월 10일(토)
  - 장소 : 문화원 앞 주차장
  - 이용우 원장, 윤종준 사무국장, 문화가족 회원 참석
- ▷이종민 사진 전시회
  - 일시 : 11월 17일(토) 11시
  - 원장 참석 축하, 윤종준 사무국장 참석
- ▷교산동건물지 3차발굴 지도위원회
  - 일시 : 11월 28일(수) 10:00
  - 이용우 원장, 김종규 이사, 한상준 이사, 윤종준 사무국장 참석
- ▷송옥진(서양화 강사, 한국 여성작가회장),



- 제8회 여성작가회전,
  - 일시 : 12월 5일 - 11일,
  - 장소 : 공평아트센타
- ▷재향군인회 안보강연회
  - 일시 : 12월 6일(목)
  - 장소 : 문화원 교육관
- ▷경기소리보존회 창립회의
  - 일시 : 12월 18일(화) 14:00
  - 장소 : 시청
  - 원장, 이점도 이사 참석
- ▷디지털자료실 개설행사
  - 일시 : 12월 19일(수) 14:00
  - 장소 : 시립도서관
  - 이용우 원장 참석
- ▷천왕사지발굴 지도위원회
  - 일시 : 12월 21일(금)
  - 문화원 교육관 및 현장
  - 이용우 원장, 김종규 이사, 한상준 이사,  
윤종준 사무국장 참석
- ▷이성숙 이사 전시회
  - 일시 : 12월 21일(금)
  - 장소 : 세종문화회관
  - 이용우 원장 참석

## 하남의 지역사 관련자료

우리 하남시가 1989년에 시로 승격된 이래로 활발하게 우리 지역사 연구의 열기가 피어올라 이제 제법 여러 가지 자료가 축적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근래에 발행된 책 중에서 지역사 연구에 유용한 대표적인 책들을 소개해 본다.

### ● 『河南省 史料集』 1 (고대 · 중세편)

- 편저자 : 김세민/장득진 공동 편저,
- 발행처 : 하남문화원 (1998년 2월)
- 주요내용 : <삼국사기><삼국유사><일본서기>  
 <이성산성출토 목간><고려사><고려사절요>  
 <고려도경>,금석문과 기문, 묘지명 <세종실록 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우리 지역과 관련된 기록을 수록.

● 『河南省史料集』 2 (조선1)

- 편저자 : 장득진/김세민 공동 편저
- 발행처 : 하남문화원 (1999년 2월)
- 주요내용 : <조선왕조실록>의 태조대왕실록에서부터 예종대왕실록에 이르기까지의 기록과 조선 시대의 금석문 4편을 수록.

● 『河南省史料集』 3 (조선2)

- 편저자 : 김세민
- 발행처 : 하남문화원(1999년 12월)
- 주요내용 : <조선왕조실록>의 성종대왕실록부터 고종황제의 실록까지의 자료를 수록.

● 『河南省史料集』 4 (인물편-민영휘)

- 편저자 : 김세민/신동규
- 발행처 : 하남문화원(2001년 12월)
- 주요내용 : 하남 출신의 인물에 관한 자료 중 첫 번째로 민영휘와 관련한 자료를 수록하여 당시의 사회상과 역사적 사실을 읽을 수 있다.

● 『南漢秘史』

- 지 은 이 : 구민회
- 발 행 처 : 하남문화원(1998년 복간)
- 주요내용 : 1955년도에 광주문화사업회에서 간행하였던 책으로 백제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 있다. 6.25동란 직후의 어려운 상황에서 가진 역사적 관심을 높이 살만하며 지명, 유적지, 전설, 인물에 관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 『河南地名誌』

- 편저자 : 구자관
- 발행처 : 하남문화원(1999)
- 주요내용 : 하남 지역의 지명유래와 이 땅에서 살아온 집성촌 소개, 효자와 충렬인물을 수록하고 있다. 지명유래는 아직 세부적인 소지명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용이 소략하지만 우리 지역의 지명을 근래에 종합 정리한 것은 처음이다.



● 『河南省史』

- 편저자 : 하남시사편찬위원회
- 발행처 : 하남시(2001년 5월)
- 주요내용 : 1989년에 시로 승격된 이후 처음으로 <역사도시 하남> · <환경도시 하남>의 2권으로 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포함하여 수록한 시디롬을 함께 발행하였다.

● 『河南의 歷史와 文化』

- 편저자 : 하남역사문화연구회
- 발행처 : 국학자료원(2001년 3월)
- 주요내용 : 2001년 2월 2일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하남역사학술대회(21세기 하남의 재발전)에서 발표된 원고와 토론문을 수록하고 있다.

● 『資料를 통해 본 河南』

- 편집자 : 김세민/이장우/이효종
- 발행처 : 하남시/하남역사문화연구회  
(2001년 10월)

- 주요내용 : 제1편 등록류, 제2편 지리지, 제3편 문집류, 제4편 야사, 제5편 중국정사 조선전, 제6편 기타 자료.

● 『문화유적분포지도 -하남시-』

- 조사 단 : 세종대학교 박물관
- 발행 처 : 하남시(2000년)
- 주요내용 : 하남시 관내의 문화유적분포를 지도상에 표기하고 유적의 개요를 도표로 정리하였으며 사진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 『경기문화유적지도 2』

- 발행처 : 경기도 박물관
- 주요내용 : 문화유적 분포를 지도상에 표기하고 시군별로 찾아보기 표를 수록

● 『南漢日記』

- 번 역 : 이훈중
- 발행처 : 광주문화원(1992)
- 내 용 : 병자호란 당시 쓰여진 일기

문화 예술의 샘터

## 하남문화대학 수강생 모집

문화예술의 샘터 하남문화대학 강좌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남문화원은 1996년 설립 된 이래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는 물론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급 교수진을 초빙하여 개설되는 하남문화대학 강좌는 시민 여러분의 문화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접수안내

- ▶접수기간 : 연중수시접수(강좌별 결원 있을 시)
- ▶접수처 : 하남문화원 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95-1020/1022

### ◎ 입회 및 수강 신청안내

- ▷문화가족 입회원서와 연회비(1만원)를 함께 제출
- ▷수강신청 인원의 미달로 인하여 폐강될 경우 다른 강좌로 변경가능
-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강료와 재료비, 교재비 등은 모두 별도입니다.
- ▷수강료는 지역문화 발전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 문화대학 수강생께 드리는 혜택

- 1. 하남문화원 회원자격 부여
- 1. 수료증 발급
- 1. 연말에 작품 발표회 개최
- 1. 우수 수강생 표창
- 1. 문화원 주최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
- 1. 본원에서 발행하는 『위례문화』지와 각종 간행물을 무료제공



◎ 강좌안내

● 민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경기민요를 비롯한 우리 나라 민요를 기초부터 지도

강사 : 박 윤 정 선생

중요 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선정(1997)

제2회 전국 경서도창 및 민요경창 장원(1994)

현재 한국국악협회 하남시지부장

경기소리보존회 하남지부장

● 가요

흘러간 옛 노래부터 최신 가요에 이르기까지 발성과 창법을 실기 위주로 지도

(매주 목요일 11시부터)

강사 : 황 나 영 선생

“당신은 나의 첫사랑”등 앨범 17집 취입

현재 [현] 레코드 전속 가수

현재 한국 국악협회 하남지부 감사

## ● 디스코 & 라틴댄스

댄스의 기본 스텝을 비롯한 이론과 실기를 기초부터 전문가 수준까지 향상되도록 지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부터)

강사 : 이 미 옥 선생

- 한국 여가레크리에이션 지도자
- 스포츠댄스지도자
- 사회체육(에어로빅) 지도자
- 반포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출강
- 구리 LG백화점 강사





## ● 문인화(사군자)

문인화(사군자)의 기초 운필법을 비롯하여 화풍의 연구와 함께 자연풍물의 진지한 사생을 통하여 마음의 눈을 뜨게 하고 심미안을 길러주고 개인별 지도를 함.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강사 : 백담 이 점 도 선생

- 원당 김제운 선생 사사
- 구당 여원구 선생 사사
- 천석 박근술 선생 사사.
- 대한민국 예술진흥회 신춘초대전 최우수상
- 현, 세계 서화작가협회 회원
- 현, 하남문화원 이사



### ● 한문서예

서예 입문자를 위한 기초 필법을 비롯하여 전문적인 서법에 이르기까지 역대의 명필 중에서 여러 가지 서체와 서풍에 대한 기초적 용필, 결구법을 체계적으로 지도함.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까지)

강사 : 소농 이 성 숙 선생

동방아카데미(서예대학원과정) 2기 회장  
국전 초대작가 / 전국회호대회 초대작가  
한국미술협회 회원 / 국제 서도연맹 회원  
현, 소농서실 원장/하남문화원 이사  
위례서예인협회 (강동, 송파, 성남, 하남) 하남지부장  
한국미술협회 하남지부 회장





## ● 한글서예

훈민정음의 제정 원리에 입각한 한글의 자음과 모음, 받침의 필법과 판본체 및 궁체 등 서체연구의 과정까지 개인별 지도를 해준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까지)

강사 : 소담 박 종 희 선생

-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1995)
- 서울 서예공모대전 초대작가(1995)
- 한국 교육 미술협회 초대작가(2000)
- 대한민국서예대전 심사위원(1999)
- 대한민국 한글서예대전 심사위원(2000)
- 대한민국 서예공모대전 심사위원(1998)
-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심사위원(2001)
- 한중 서예협회 교류전(1997)
- 워싱턴 매릴랜드대학 초청전(1998)
- 대한민국 3대 서예 초대작가전(1998)
- 현 오죽헌 서예학원장
- 하남문화원 이사

## ●서양화A

소묘를 비롯한 수채화 등 서양화의 기법을 기초부터 세  
부적인 기법에 이르기 까지 단계별 지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까지)

강사 : 창랑 배 순 덕 선생

- 중앙미술대전 (호암갤러리, 1989)
- 동아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1991)
- 국립극장 초대전 (2000)
- 해양수산부 초대전 (2000)
- 전국향토사연구협의회  
초대전 (2000)
- 한국학술진흥재단 주  
최 중국, 러시아, 폴란  
드 등 동구권 연수
- 1995년부터 2001년까  
지 총 29회의 국토종단  
스케치전 개최
- 현 구리문화원 강사
- 창랑화실 주인



## ● 서양화B

서양화의 기법을 기초부터 단계별로 지도하고  
특히 유화를 중점적으로 지도 함.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강사 : 송 옥 진 선생

현대미술대전 최우수상(1994), 프랑스 파리전 출품(문화관광부 주최)

동남아시아 5개국 순방전, 몽골전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1997)

한국미술협회 서양화 분과위원

전업미술작가회 회원 / 한국여성작가회 회장

□



## ● 어린이 바둑교실

바둑은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이 즐겼던 여가문화로서 두뇌를 개발하고 정서순화와 건전한 취미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한국기원에서는 바둑을 올림픽 종목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에는 바둑학과가 개설되었다. 하남문화원에서는 매년 6월에 바둑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경기도지사배 바둑대회가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주최로 열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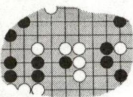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강사 : 박 상 택 선생


아마 8단  
현, 분당 바둑학원 원장  
하남시 기우회  
총무

2001 지역문화의 향

**제5회**  
**2001 하남 어린이 바둑대회**



- 일 시 : 2001년 6월 17일 (월) 09:30
- 장 소 : 하남문화원 문화교육관
- 주 최 : 하남문화원
- 주 관 : 하남기우회, 하남여성기우회
- 후 원 : 하남시


**하 남 문 화 원**



● 어린이 글짓기/논술교실  
 ● 어린이 글쓰기 지도를 위한  
 어머니 교실

독후감 쓰기, 원고지 쓰는 법, 일기 쓰기, 편지쓰기 등 글짓기와 논술의 방법을 초급반과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누어 지도한다.

(수업요일은 문화원 사무국으로 문의).

또한 어린이 글쓰기를 위한 어머니 교실은 글짓기 지도와 독서지도 요령을 시인 김미숙 선생이 알려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강사 : 시인 김 미 숙 선생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졸업

2000년 『한국크리스천 문학』 시부문으로 등단

한국독서교육위원회 독서지도교사

하남 글샘논술학원장 역임

하남 YWCA독서지도 강사

하남문화원 명예기자 역임

한국크리스천 문인협회 회원 / 하남문인협회 회원



- 종이공예(성인과정)
- 어린이 종이접기

종이를 이용하여 생활용품이나 장식용품 등을 만들 수 있으며 건전한 취미활동과 여가선용에 적합한 강좌

강사 : 유 경 아 선생

- 고려닥종이협회 회원
- 97년, 99년 전국 종이접기 놀이마당 작품전시회
- 에버랜드 아트갤러리 작품전시회
- 전국 닥종이공예대전 은상 수상(1998)
- 전국 한지공예대전 닥종이 인형 입선(1999)





## 하남기우회 회원 모집



하남시 바둑문화 창달이라는 기치 아래 바둑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건전한 취미 문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하남기우회와 하남여성기우회는 바둑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시민 모든 분을 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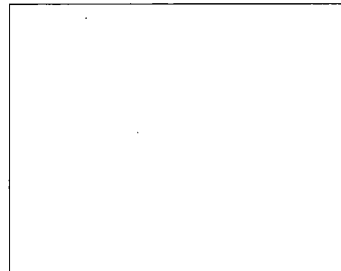
♣ 장 소 : 하남문화원 교육관

♣ 연락처 : 하남문화원 사무국 (795-1020)

하남기우회 사무실 (792-1243)

총 무 (011-892-8504)

※ 기타 강좌의 신설 혹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좌의 개설 및 시간표는 문화원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례문화』 제6호 원고모집

하남시민의 문화소식지 『위례문화』 제6호에 게재할 원고를 기다립니다.

하남시 문화발전의 꿈을 가진 이들과, 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내 용]

- ▷시, 수필, 콩트 및 문예작품
- ▷향토문화 시론 및 논단
- ▷우리고장 역사문화자료 : 문화유적 및 유물, 설화, 민속놀이 등 발굴 자료 및 연구자료(관련사진 첨부)
- ▷우리고장 옛모습을 담은 사진

### [유의사항]

- ▷원고접수기간 : 연간 수시접수
- ▷필자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 ▷보낼 곳 : (우) 465-805  
하남시 덕풍1동 426-10(구 시청 2층)  
하남문화원 앞  
전화 (031) 795-1020 / 795-1020  
팩스 (031) 795-1065

# 문 화 원 회원가입 안 내

하남문화원은 지역문화  
창달의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남시의 문화를  
이끌어 갈 뜻 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문화에 관심을 갖고 뜻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시민 모든 분을 문화원 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  
다.

◎ 회원자격 : 만 19세 이상의 남녀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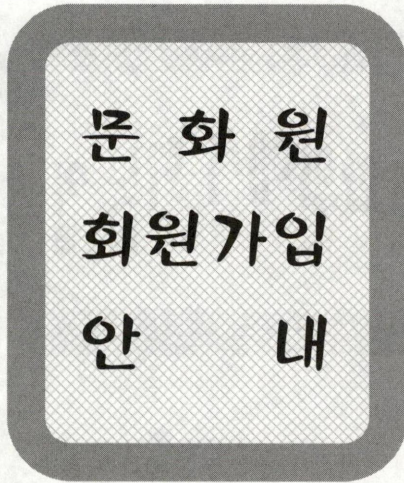
◎ 단 체 : 문화예술 분야 및 건전한 취미 동아  
리의 단체가입도 가능함

◎ 회원특전 :

▷본원에서 발행하는 『위례문화』 지를 비롯한  
각종 간행물과 자료의 무료 제공

▷본원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 및 강좌에  
우선 초청

◎ 회 비 : 일반정회원 연회비 1만원  
일반특별회원 월 1만원



◎ 회비납부방법 : 직접납부 : 문화원 사무국  
은행입금(농협) : 165-01-165416  
(예금주 : 하남문화원)

◎ 가입방법 : 직접방문 가입신청서 작성제출  
※전화로 신청하시면 가입원서를 보내드립니다.

주소 : (우) 465-805 하남시 덕풍1동 426-10  
(구시청 2층)  
전화 (031) 795-1020(代)  
팩스 (031) 795-1065



# 문화원에서 하는 일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전, 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

## 편집후기

우리 하남시민들만큼 양극단적 환경에서 생활하는 곳은 많지 않을 듯 싶다. 시의 대부분의 지역이 녹지대이다 보니 맑은 공기 속에서 산다는 행복도 있으려니와, 문화적 생활에 대해서는 기대할 바가 별로 없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기 때문이다.

문화원에 몸 담은지도 3년의 세월을 맞이하고 있다. 나의 부족한 능력에다가 열악한 문화환경 속에서 많은 갈등도 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연민으로 고민하기도 했다. 그 동안 우리 하남문화원이 시민들에게 부족했던 점들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문화발전 방안에 대한 성찰을 하며 새해 맞이를 해야겠다.

또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 하남의 시민들도 스스로 문화발전을 위해 뛰어 가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문화라는 게 누가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천하는 행복찾기의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지난 해 <위례문화> 제5호를 내지 못하였었다. 해를 건너서라도 다시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협조를 해주신 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사무국장 윤 종 준

지역문화 창달의 길잡이

『慰禮文化』 제5호

2001

---

발행인 : 이 용 우

편집·기획 : 윤 종 준

출판사 : 영진기획문화사

발행일 : 2001. 12. 31.

발행처 : 하남문화원

경기도 하남시 덕풍1동 426-10(구 시청 2층)

TEL (031) 795-1020 / 795-1022

---

본 책자는 국비와 하남시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